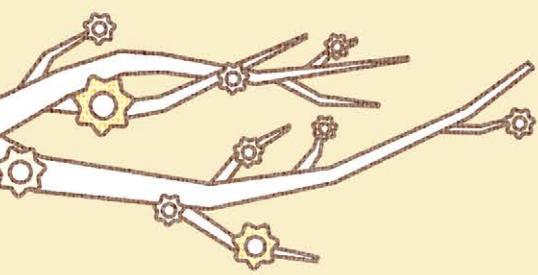




단장면 25개 마을

알콩달콩 이야기책





contents

4 단장면

5 리동가

9 감물리

9 구기마을

12 용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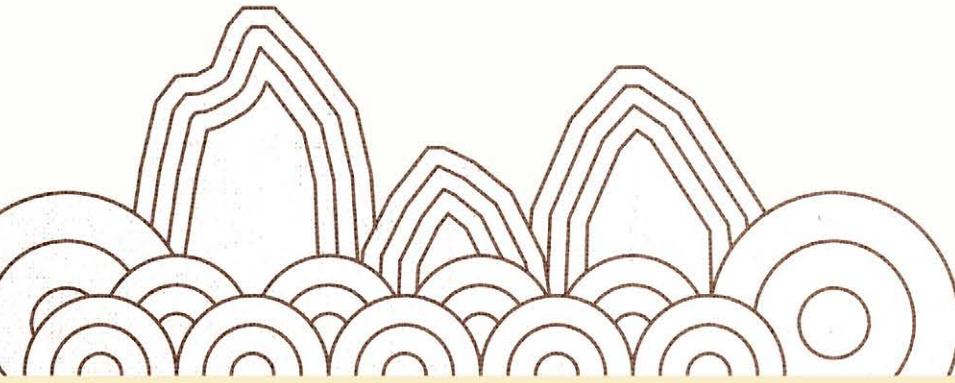
16 중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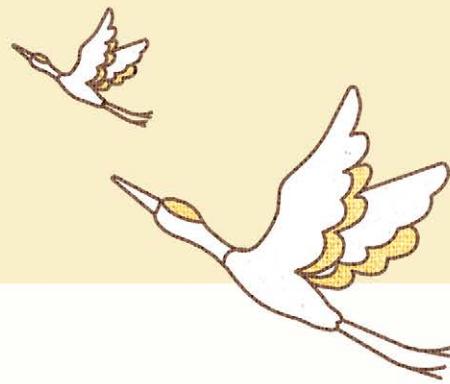
19 고례리

19 고례마을

24 바드리마을

27 평리마을





30 구천리

- 30 구천마을
34 삼거마을
36 시전마을
40 표충사

43 국전리

- 43 국동마을
47 국서마을
49 남원양시 열녀전

57 단장리

- 57 단장마을

63 무릉리

- 63 노곡마을
66 무릉마을

68 미초리

- 68 구미마을
71 사촌마을

75 범도리

- 75 범도마을
79 아불마을

82 법흥리

- 82 법흥마을
87 사지마을

89 사연리

- 89 동화마을
92 사연마을

95 안법리

- 95 안법마을

99 태룡리

- 99 연경마을
103 태동마을

106 단장문화햇살사업 PPT

108 활동보고서

113 채록을 마치며



단장면은 시청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15km 떨어진 산간 지역이다. 옛날에는 부경 중의 태산이라 일렀고 지금은 영남알프스라고도 불리는 재약산(주봉 1189m)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북쪽 그리고 남쪽 셋 방향으로 1000m 내외의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산중의 별구(행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표충사는 신라 흥덕왕 4년(829년)에 황면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며 사찰 주위에는 23종의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재약산 일대 자연경관과 사자평은 전국적으로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높을 뿐 아니라, 4개소의 자연 발생 유원지를 비롯하여 곳곳에 깊은 골과 맑은 물을 자랑하고 있다. 특산품으로 대추, 한천, 표고버섯, 맥문동이 생산되며, 특히 대추와 한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생산지이며, 표고버섯과 맥문동은 밀양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국화전(菊花田) 서물(庶物)한 산(山)

진주동(進舟洞) 배를 모아 지사동(智士洞) 학서학지(學書學智)

무릉동(武陵洞) 돌아들어 가실(蘆谷)에 백로(白鷺) 앉고

용포(龍浦)에 꿈을 꾸니 소태동(小台洞)이 부가(富家)로다

부엉덤 노적봉(露積峰)은 단정(丹亭) 항상 정기(精氣) 받고

용회동(龍回洞) 슬쩍 건너 사연리(沙淵里) 모랫길에

도화 일지(桃花一枝) 꺾어 들고 승학동(乘鶴洞) 학을 타고

동화전(桐花田) 건너 들고 당모랭이 돌아들어

정각산(鼎角山) 슬푼 넘어 정승동(政丞洞) 쉬어 가자

5

도래재(回嶺) 돌아넘어 재악산(載嶽山) 죽림가람(竹林伽藍)

표충사(表忠寺)에 들어오니

구절장삼(九節長衫) 노선사(老禪師)는

백팔염주(百八念珠) 목에 걸고

아미타불(阿彌陀佛) 염불(念佛)하니 극락세계(極樂世界) 여기로다

파리답(籬畜) 지슬 따라 삼거리(三巨里) 업어 내려

귀내(龜川)에 고기 낚아 범도연(泛棹淵) 뜻을 달아

벼락덤(雷岩崖)에 떨어지니 평리(平里)가 앞에 있네

순풍시절(順風時節) 호시절(好時節)에 풍류동(風流洞)이 그 아닌가

바오달(바드리) 백마산성(白馬山城) 창의용사(倡義勇士)

결사보국(決死報國) 성터만은 아직 있네

고야천(姑射川) 맑은 물에 은어(銀魚) 떼는 뛰고 노네

덕달리(德達里) 가림들에 새(新木) 말띠기 구경하고

사희동(四熙洞) 건너들어 변자당(卞慈堂)나팔고개

리동가. 里洞歌 (단장면/丹場面)

잠시 쉬고 일어나세 농암(籠巖) 청석(淸石) 놀이 가자

농암대(籠巖臺) 구경하고 오목골 치밟아서 열두들 넘어서면
연화동(蓮花洞) 꽃밭 속은 용소(龍沼)로 둘러 있고
사지(沙旨) 상봉(上峰) 상상봉(上上峰)에
상원암(上元岩)이 번뜩 드네

6
버구(法貴) 삼동(三洞) 니리들어 귀미(龜尾) 사촌(沙村) 양어금에
칠리수(七里水)가 합수되니 귀호(龜湖)에는 거북 뜨고
등잔소(燈盞沼)를 구비 돌아 수십 길 장송(長松) 아래
월연대(月淵臺)가 솟아 있고
놀기 좋다 금시당(今是堂)은 좌우로 둘러 있네

용두소(龍頭沼) 푸른 물에 정자선(亭子船) 올라 보니
진홍단장(眞紅丹粧) 기생들은 노래하고 춤잘 추네
웅천(凝川)에 뒷을 내려 영남루(嶺南樓)에 올라보니
뜰에는 돌꽃(石花)이요 루(樓) 아래는 죽림(竹林)이네

마암산(馬岩山)이 현산(軒山) 되고 아북산(衙北山)이 진산(鎮山)이네
아동산(衙東山) 둑은 해가 나리티(日峴)에 해 기우니
만풍(晚風)에 디린바람 백발(白髮)만 날리구나

밀양 향토사학자 손 흥 수

리동가 발굴률 도와주신 분 (12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마을 : 심재곤(남) 안법마을 : 박영순(여) 법산마을 : 추복도(여) 사촌마을 : 남상규(남) 단장마을 : 허 선(남), 이상홍(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마을 : 우일남(여) 국전마을 : 장운수(남) 덕달마을 : 이복우(남) 태동마을 : 김성준(남), 박정식(남) 안법마을 : 배응태(남) |
|---|---|

단장면 리동가 요약 및 지명 설명

7

1. 조사 경위

각 리동의 어른분들로부터 단장면 지명 유래를 조사하던 중 그 옛날 선조들이 농사일 가운데 틈틈이 이동가를 불러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각 마을의 연로하신 남녀 12분의 도움으로 한 소절 한 소절씩 연결하여 면민들에게 선조님들의 여유로움과 고달픈 삶을 후손들에게 들려주어서 내 고장의 역사와 지명, 명소, 리동가를 보존하려는 목적

2. 가사(歌詞) 내용

- 지역명 : 단장면 리동과 산과 물길 따라 영남루까지
- 내 용 : 리동 지명과 마을 역사를 소개한 가사 (100년~300년 전 역사)
- 용 도 : 농요로서 농한기 농번기 유희 시 농민들이 농요 또는 내방 가사로 틈틈이 불리워짐
- 시 기 : 약 80년~300년 전에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구전으로 불리워 진 가사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가사가 추가됨)

3. 자료 조사자

- 조 사 자 : 밀양 단장면 미촌리 구미2길 35 (구미마을) 거주 향토사 연구자 손 흥 수
- 조사기간 : 1993년~2014년



4. 지명 및 가사내용 설명

1. 국화전 : 국전마을. 리동가의 첫 번째 마을
2. 서물한 산 : 조산방, 주물(呪物)한 산마을을 비보하기 위하여 숲이 있었으며 돌무지 조산방을 새마을사업 때 다리 공사에 채움 돌로 하여 없어지고 난 후 다시 동민들의 합의하여 새로 그 터에 다시 조성.
3. 진주동 : 국전 아랫마을. 마을 뒤 일제가 광산 개발을 하였으며 지금은 폐광
4. 지사동 : 지시동마을, 옛날(200년 전) 능성 具氏의 서당이 있었으며 지금은 서당 터만 밤밭 속에 있음
5. 무릉동 : 무릉마을
6. 가실 : 노곡마을 소눌(小訥) 노상직(盧相稷 1854–1931) 선생 자암서당(紫岩書堂)이 있음
7. 용포 : 마을이름
8. 소태동 : 태동마을
9. 부엉덤 : 단장천변 용회동 앞산
10. 노적봉 : 경주산을 말하며 단장마을의 노적봉이며 오룡(다섯 마리의 용)이 한 구슬을 두고 다투다 하여 경주산이라 하였으며, 일제가 공동묘지를 조성함.
11. 단정 : 단장마을. 단장면사무소가 있었으나 공비들의 방화로 소실되었으며 지금은 그 터에 홍제중학교가 개교함
12. 용회동 : 용회동 마을 입구 동남쪽에는 연경마을이 있었으며 시장도 있었다. 1919년 기미년 만세운동이 일어난 연경장터 만세운동지였으며 사라호 태풍 때 침수 마을이 유실됨.
13. 사연리 : 사연리 마을. 마을 상류 하천에는 곰소가 있음
14. 승학동 : 사연리 안골마을
15. 동화전 : 동화전 마을
16. 당모랭이 : 동화전에서 아불로 가는 중간 산모롱이. 길 가운데 당나무가 있음
17. 정각산 : 아불 골마 뒷산이며 산속에 정각마을이 있었으며 지금은 폐동되었고 옛 절터에는 부도탑만이 남아 있음.
18. 정승동 : 귀내 북서쪽 골짜기 안마을 고려 공민왕 때 정승(政丞)인 "안성군(安城君) 김용(金鏞)"의 귀양지
19. 도래지 : 귀내에서 남명 간 고개 이름

3

감물리

옛날부터 ‘샘물이 차고 달았다’ 하여 단물리 또는 감수(甘水)를 감물(甘物)로 표기한데서 비롯된 지명이라고 하고 일제 강점기에 감물(甘勿)로 변경하여 지금껏 부르고 있다고 한다.

감물리에는 구기마을, 용소마을, 중리마을이 있다.



9

구기마을



동리 북쪽에 위치한 자연마을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다. 구기는 옛날의 마을 터라는 뜻인데 서북쪽산 기슭에 있는 대밭과 죽봉대, 깨밭고개 등의 명소도 있다. 이 곳 계곡과 마을의 샘물이 매우 차고 달아서 감물리에 대한 지명의 유래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서북 산기슭에 있는 대뱅이, 새뱅이 등도 이 마을에 소속된 뜸(한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데 모여 있는 구역)이다. 연주 현씨

구기마을

의 집성촌이며 주소득원으로 벼, 축산 사육 및 노지 둘깨가 재배되고 있다.

감물리 입구를 들어서면 넓은 감물저수지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의 저수지로 주변에 예쁜 전원주택들이 몇몇 보인다. 감물리는 옛 문현에는 밀양의 3대 오지마을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잘 연결되어 전혀 오지마을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저수지 바로 위쪽으로 붙어 있는 마을이 구기마을이다.

동쪽으로는 국전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만어산 줄기를 따라 법흥리와 삼랑진읍 우곡리에 와는 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으로는 험준한 구천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삼랑진읍 행곡리와 경계를 삼았고, 북으로 새뱅이를 넘어 무릉리와 이웃하였다.

이곳에 취락이 형성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전란 등으로 숨어사는 사람들이 흘러들어와 화전을 일구고 경지를 확보하면서 이루어 놓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구기에는 구기 대뱅이가 있다. 마을 앞에 인공으로 쌓은 것이다. 자연 석대도 있는데 이 곳 대밭에 봉황이 날아와 깃드는 곳이라 하여 죽봉대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 대뱅이는 대밭이라 는 뜻으로 대뱅이 또는 죽방이라 한다. 후인들이 지명을 아름답게 붙여 죽봉이라고도 한다.

대뱅이(竹坊, 竹鳳, 竹峯) : 구기마을 서북쪽 새뱅이 남쪽에 있는 뜰(한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데 모여 있는 구역)이다. ‘이 곳에 품질 좋은 대밭이 있었다’ 하여 대밭마을이란 뜻으로 대뱅이 또는 죽방이라 하였고, 뒷사람들이 지명을 아름답게 붙여 죽봉이라고도 했다. 또 마을 앞에는 인공으로 쌓은 것 같은 경치 좋은 자연 석대(石臺)가 있는데 이 곳 대밭에 봉황이 날아와 깃드는 곳이라 하여 죽봉대라는 이름을 짓고 석면에 각자를 해두었다. 지금은 대밭이 없어

지고 5, 6호의 민가가 남아 있다. 마을 뒷산 이름을 죽봉산 또는 죽봉이라고 한다.

대방고개는 구기에서 대뱅이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죽봉대가 있는 곳이라 하여 바위 이름은 대방우라 하였고 등성이를 대밭등이라 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 7월까지 10년 동안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평화로

◆ 구기마을

운 산골마을에 어느 날 얼음골 샘물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이라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했다.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지에 나간 고향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비록 외지에 나가 있지만 나아 들면 우리도 고향 찾아갈 텐데 고향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물이 귀한 이 마을에서 물 공장을 설립하면 동네 주민은 결국 물 부족으로 인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마을 사람들이 샘물공장 건립을 반대했다. 한창 바쁜 농번기에는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팔십이 넘는 마을 어르신들이 시위 장소를 지켰다. 그런 힘든 중에도 동네 사람들은 불평 없이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았다. 덕분에 마을을 주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었다.

잡풀이 무성한 1000여 평의 샘물공장부지에는 연분홍 접시꽃이 피어있다.





감물리의 남쪽 산기슭에 위치한 가장 큰 자연마을이다. 마을 남쪽으로 구천산이 솟아 있고 동남쪽 골짜기를 따라 당고개를 넘어가면 삼랑진 우곡리에 이른다. 당고개를 넘기 전에 5, 6호의 고개마을이 있는데 지명은 역시 당개마이다. 밀양 박씨, 함안 조씨 등의 집성촌으로 주소득원으로는 축산, 과수, 벼 및 노지들깻잎, 밤 등이다.

용소라는 지명에 대하여는 옛날 마을 앞에 깊은 늪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용이 물가로 나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또 용이 날아갔다는 마을 동쪽 산봉우리에서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마을 앞에는 작은 못이 남아 있는데 아무리 큰물이 지거나 가물어도 수량이 일정하다 하여 용소 큰 샘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용소마을은 중리마을 구기마을 등 3개 마을로 이뤄진 해발 300m 급 산간 마을이다. 용소마을은 옛날에 작은 늪에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용소마을과 중리마을 사이 들판은 아담한 다랑이 논이다.

용소마을

용소마을 뒤로는 삼랑진 우곡리로 연결되는 2차선 도로가 있고 마을 앞으로는 삼랑진 행곡리 여여정사가 있는 남촌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2차선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감물이 다행이 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다. 해가 갈수록 논 경작지가 줄고 있어 매년 볼 때마다 허전한 마음이 든다. 몇 해 전 이곳 포토존도 만들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축제도 열었었다.

포토존 길 건너편에는 “고깔봉 종석의 강”이라는 팻말이 있다. 이곳의 위치가 삼랑진 만어사가 있는 산 뒤편이라 여기도 종석들이 한 무더기 모여 있다. 돌로 두드려보면 종소리가 난다는 종석인데 직접 한 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전망대 바로 옆에는 찌아찌아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밀양 출신의 권영찬씨가 공직생활 중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전파하는 봉사 단체인 찌아찌아한글장학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다가 은퇴 후 이곳에 터를 잡고 귀촌 생활 겸 카페를 운영하신다.

용소마을회관은 영남알프스 둘레길 15코스의 출발지이다.

13

- 점골(店谷, 鼎谷)

감물리 들머리의 첫 번째 뜰(한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데 모여 있는 구역) 이름이다. 근처에 골짜기가 있어 점골이라 부르는데 옛날 이곳에 옹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용소마을에 속하는 작은 마을이다. 또 솔골이라는 별명이 있어 옛날에 거창 신씨가 살면서 솔을 남겼다고 한다.

- 각시샘

굴등 남쪽 비탈 중간쯤에 있는 샘이다. 옛날 전쟁 중에 굴속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어느 누이가 있었다. 성년이 된 누이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굴속에서 숨어살던 어느 날 조심조심 바깥의 동정을 살피며 비탈에 있는 샘물을 떠오기 위하여 나갔다. 그때 마침 밖에서 동정을 엿보고 있던 적병에게 발각되어 동생을 굴속에 남겨둔 채 붙잡혀 갔다. 누이는 어린 동생을 생각하고 울며불며 끌려갔다가 적병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나무에 목을 매어 자결을 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이 누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각시샘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이 있다.



용소마을

- 큰고개(大峴)

용소마을 꼬깔산 남쪽에 잘룩한 목이 있다. 삼랑진읍 옵실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하여 큰고개라 한다.

- 용소담(龍沼潭)

용소마을 큰고개 밑에 있는 땅 이름이다. 그 땅 아래에 뭇이 있어 용소담이라 하며 땅과 함께 아울러서 용소담이라 부르고 있다.

- 당고개마을(堂嶺村)

점골 남쪽에 삼랑진읍 행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밑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이다. 용소마을에 속 하며 5, 6호의 민가가 모여 사는 곳이다. 이 고개 밑에 당집이 있었다 하여 당고개인데 지금은 마을과 고개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다.

- 조산(造山)

용소 앞뜰에 있는 돌무더기이다. 이곳에 명당자리가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래 투장(남의 산이나 땅자리에 몰래 장사를 지냄)을 할까 하여 예방하는 의미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던짐으로써 묘같이 위장해 놓은 것이라 한다.

- 큰꼬만댕이(三峯峴, 大高嶺)

용소에서 삼랑진읍 우곡리 삼봉 안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크고 높은 만댕이’이라는 뜻으로 삼봉령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또 용소 마을 남쪽에 있는 등성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마을 주민 손기덕선생님은 아주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며 죽봉대로 안내해 주셨다.

“벗물이 고인 저곳에 흙을 넣어 살구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동네 아이들이 올라가 살구를 많이 따 먹었지요. 그 그늘 아래에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와 소꿉놀이도 했지요. 우리를 때만 해도 여기 와서 많이 놀았지요. 아이들이 놀이 삼아 나무에 올라가 놀다 보니,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죽더구만요.” 아쉬움이 한껏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바위에 새긴 희귀한 장기판이 있어 주민 두 분이 장기 두는 시연을 해 주셨다.

용소마을

이곳을 찾은 옛 선인도 사라지고 그 옆을 지키던 살구나무도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





감물리에서 가장 한가운데 위치한 자연 마을이다. 법흥리의 법산과 상봉을 통하여 들어오는 도로가 북서쪽으로 나 있는데, 들머리에는 점골이라는 뜸(한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데 모여 있는 구역)이 있다. 오래된 감물지를 북쪽으로 바라보는 도로변 마을 입구에 감물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남쪽에는 중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다. 박씨, 김해 김씨, 임씨 등의 집성촌으로 주소득원으로 축산 사육 및 복승, 고추, 노지들깨가 생산되고 있다.



단장면 서남쪽 변두리에 위치한 오지로 지대가 높은 산중 별구(別區)이다. 동쪽으로 중첩한 산을 격하여 국전리와 경계를 지었고 서로는 만어산 줄기를 따라 법흥리와 삼랑진읍 우곡리에 면계를 이루고 있다. 남으로는 험준한 구천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삼랑진읍 행곡리와 경계를 삼았고 북으로 새뱅이를 넘어 무릉리와 이웃하였다.

이곳에 취락이 형성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전란 등으로 숨어사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 화전을 일구고 경지를 확보하면서 이루어 놓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샘물이 차고 달았다 하여 단물리 또는 감수를 감물로 표기한 데서 비롯된 지명이라

◆ 중리마을

한다. 동리의 중심 지대에 몇 대의 소류지를 사이에 둔 작은 들판과 자연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 북, 동, 서로 구기, 중리, 용소 마을이 각각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에 비로소 이 산상 구역의 몇 개 자연마을을 아울러서 하나의 법정리를 삼았다. 일찍부터 김해 김씨와 연주 현씨가 이 동리에 터전을 잡아 세거지가 되었다. 감물지리, 감물예리 또는 연화동이라는 별칭이 있다.

감물리 용소마을과 중리마을 사이 들판은 아담한 다랑이 논이 있다. 둘레길은 다랑이 논 사이 길로 올랐다가 왼쪽으로 내려간다. 당집과 당산나무 앞을 지난 후 계속 길을 이어가면 다랑이 논 사이를 통과해 중리마을회관을 지나게 된다. 중리마을회관에서 왼쪽으로 꺾어 내리막길을 따라 7분쯤 가면 감물분교터와 감물리 버스정류소를 잇따라 지나고 곧바로 구기마을 입구 갈림길이다.

마을회관 도착 전 왼쪽 주택 옆의 '길 없음'이란 표지판이 있다. 하천이 나온다. '길 없음'이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 다니는 길도 없다. 마을회관 앞에는 느티나무가 있다.



– 안골(內谷)

중리 마을 뒤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골짜기의 이름이다. 중리마을 안쪽에 있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 활구부등(弓彎嶝)

중리 마을 북쪽에 있는 산등성이의 이름으로 지형이 마치 활장같이 구부등하게 휘어져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오리봉(鴨峯)

중리마을 어구인 뒷산의 이름인데, 오리 모양으로 생긴 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중리마을

– 연화봉(蓮花峯)

중리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인데, 감물리의 주산이다. 연꽃 봉오리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연화봉이라 하였고, 이 산 아래쪽에 있는 동리라 하여 감물리를 연화동이라고 한다.

– 깨밭고개(胡麻峴)

중리마을 오리봉 북쪽에서 무릉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옛날에 단장면사무소로 내왕하는 데는 주로 이 고개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 고개 밑에 깨밭이 있었으므로 생긴 지명이다.

“당산나무가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하시며 최근순 어르신이 말씀을 이어가셨다. 당산나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액운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낸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내 오던 당산제를 어느 때부턴가 계을리하게

되면서 마을에 변고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거나 외지로 떠나가 버리고 마을이 폐허가 될 지경이 되었다.

“이래서 안 된다. 다시 당산제를 지내자” 100년도 넘게 이어져오다 끊긴 당산제를 최근순 어르신의 부친께서 다시 지내게 되었다. 당산제를 지내기 전 1주일 간 금식을 했다. 정월 10일이면

대를 잡아서 제주를 정하게 되는데 어느 집이 정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주민 중에 번갈아 대를 잡고 대가 흔들리는 사람이 당산제를 지내게 된다. 만약 ‘당산제를 못하겠다’ 하면 대나무의 대가 못하겠다는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한다고 한다.

고요한 시간 이날과 저 날이 겹쳐지는 시간 12시에 제를 올린다. 물론 그곳에 오를 때는 발소리도 나질 않는다. 사뿐사뿐 걸음을 걷듯, 날듯 그곳에 가서 마음을 모은다. 혹여 동네 개가 짖을까 봐 숨소리까지도 죽인다. 그렇게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의 한 해 동안 안녕을 지극정성으로 빌면서 아침을 맞게 된다.



고례리

조선조 초기에 점필재 김종직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유상(遊賞)했으며 승경(勝景)을 짚은 시(詩)를 남겼고 마을의 여러 지명도 선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고례리는 이미 오랜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고, 당초의 지명은 고예(庫藝)라고 했다. 또 동리(洞里)의 형국이 마치 서북쪽에 있는 범도행주(泛棹行舟)를 막고 할미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같다 하여 고예(姑曳)라고도 했으며, 그 뒤 신선이 사는 곳을 가상하여 고사리(姑射里), 고사산(姑射山), 고사천(姑射川) 등으로 아름답게 바꾸기도 했다.

고례리에는 고례마을, 바드리마을, 평리마을이 있다.



고례마을



단장면의 동남쪽 변경에 위치한 동리로 산천과 수석이 빼난 명승지이다. 서북쪽의 이웃 동리인 범도리, 아불에서 구절 양장과 같은 고사천 계곡을 거슬러 남하하면 평리, 고례, 사희동, 덕달 등 자연마을이 그림 같은 산수 속에서 차례대로 전개되고, 동북쪽에는 또 다른 승경(뛰어나게 좋은 경치) 속

에 소월리(바드리)와 풍류이란 산 위에 따로 떨어진 동네가 숨어 있는 곳이다. 동남쪽에는 향

고례마을

로봉의 높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가운데 양산군 하서면과 군계를 이루었고, 서쪽에는 뇌암산을 사이에 두고 국전리와 이웃해 있으며, 북쪽으로 높다란 산봉우리 너머에 구천리, 범도리와 경계를 짓고 있다. 밀양댐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고례마을은 밀양댐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밀양댐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비록 오지였지만 밀양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마을로 통했다.

고례리의 본동마을인 고례마을은 밀양발 새마을 버스의 종점이자 1592년 이후 내려온 인동 장씨 문중의 세거지다.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재실과 고택들을 둘러볼 수 있다. 일단 버스 종점에서 양지교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 우측으로 틀면 댐 앞쪽에 인동 장씨의 재실인 옥봉정이 있다. 단출하면서도 절제된 균형미를 갖춘 재실인데 한국전쟁 직후에 건립됐다고 한다. 다시 양지교를 건너 하천을 따라 우측으로 가면 1051번 지방 도로와 만나는데, 길 건너 맞은편 산 밑에 운치 그윽한 작은 정자가 보인다. 조선 숙종 때 이 마을에 들어와 살았던 낙주 장선흥과 그 후손인 농산 장역석을 추모하기 위해 1918년 인동 장씨 가문에서 건립한 재실인 낙주정이다. ‘임경대’라는 현판을 달고 있는 누마루에 올라 낮은 담장 너머로 고사천을 바라보면 일상의 시름이 일순간 사라지는 느낌이다. 낙주정에서 돌아 나와 고례교를 지나면 우측에 효자각이 보인다. 이 역시 장씨 문중의 것이다.

산과 물이 맑고 깨끗하고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와 전답이 아름다우며 기암절벽이 마치 옥기동을 세워 놓은 듯 깨끗한 인간 세상의 진경이라 한 기록이 있다. 고사천 상류 맑은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가에 있는 농암대는 그 대표적인 명승지라 할 수 있다. 조선조 초기에 점필재 김종직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거닐었으며 뛰어나게 좋은 경치를 읊은 시도 남기고 있으니 마을의 여러 지명도 점필재 선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고례리는 이미 오랜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고, 당초의 지명은 고예라고 했다. 또 동리의 형국이 마치 서북쪽에 있는 범도행주(泛棹行舟)를 ‘마고할미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같다’ 하여 ‘고예’라고도 했으며, 그 뒤 신선이 사는 곳을 가상하여 고사리, 고사산, 고사천 등으로 아름답게 바꾸기도 했다. 점필재 선생이 이곳을 유력한 이후에는 언제부터인지 이 마을이 고례리로 표기되었다 하며 다른 자연마을들도 도덕이 통달한 덕달마을, 상산의 사호(호는 희다는 뜻으로, 중국 진시황 때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 상산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의 선비를 이르는 말)가 놀던 곳이라는 사호리 등의 뜻깊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

역 개편 때에 구천리 일부와 양산군 원동면의 중선리 일부를 병합하여 고례리의 법정리를 구성하였다.

사호정 : 단장면 고례리 사호동에 있다. 조선조 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 감찰을 지낸 학자 채지당 박귀원(1442~1530)이 이곳에 별업을 지어 은거한 곳이다. 사호정이란 이름은 점필재 선생이 그 제자인 김굉필, 정일두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중국 상신의 고취를 모방하여 지어준 것이라 전해온다.

사회동은 사호정에서 파생한 이름이며, 그 후 사회동 또는 사의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사호정 건물은 채지당 사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폐허만 남아 있던 것을 1606년(선조 39)에 채지당의 현손인 박이화와 박이문 형제가 중건한 것을 그 후 몇 번의 홍폐를 거듭하다가 1958년에 재건하여 밀성 박 씨 문중에서 제사로 삼고 있다. 현재는 밀양댐 준공으로 수몰되었다.

21

- 고예(古禮, 姑射, 姑曳, 庫藝)

평리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통(洞)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심되는 마을이다. 고사천 계류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양지마, 남쪽에 음지마, 물 건너에 구석마 등 세 뜰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예(庫藝)와 고예(姑曳) 또는 고사(姑射) 등의 옛 이름은 이 마을을 두고 일러 온 것이며, 지금도 고례초등학교와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생활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양지마에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내강이 피난지로 정한 곳이며 그 이후 인동 장씨의 마을이 되었다. 후손들이 1957년에 옥봉 아래에다 옥봉정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음지마도 인동 장씨 일파의 마을로 순조 때 진사 장창익이 살았으며, 그 아들 장응구는 효자로서 나라의 명정이 있었는데 1898년(광무 2)에 동구 밖에다 삼성각이라는 효자각을 세워 기리고 있다. 구석마는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구석촌이라 하는데 역시 인동 장씨의 세거지이다. 조선조 속종 때에 낙주 장선흥이 이곳으로 옮겨와 살게 됨에 따라 1918년에 장씨 문중에서 입촌한 선조와 그 후손인 장영석을 추모하기 위하여 낙주정이란 제사를 세웠다.

- 구곡천(九曲川)

사회동에서 사연리까지 흐르는 계류의 지명이다. 아홉 굽이를 돌아 흐른다 하여 생긴 이름인데 채지당 박구원의 고사구곡가(姑射九曲歌)에서 연유한 것이다. 구곡은 사연, 정각산, 범도리, 승학동, 단애, 증소, 도장연, 농암대, 선소를 가리킨다.

고례마을

– 덕달(德達, 떡달이)

고례마을의 남쪽 골짜기 안에 있으며, 고사천 상류에 위치한 자연마을이었다. 조선조 초기에 점필재 선생과 같이 도덕과 문장에 통달한 명현들이 유상한 곳이라 하여 덕달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떡달이’는 덕달의 된소리 발음으로 별다른 뜻이 없는 지명이다. 행정상으로는 덕달 본동 이외에 죽촌마을과 농암대 어구에 있는 사희동이 이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 덕달마에는 조선조 숙종 때 이경범이 입촌하여 경주 이씨 일파의 세거지가 되었으며, 1960년에 그 후손들이 덕산재를 세워 보존하고 있다.

밀양강의 홍수 조절과 인근 시군의 식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댐이 1990년 4월에 착공되어 2001년 11월에 완공됨에 따라 농암대, 덕달, 사희동, 죽촌 3개 마을 83가구가 천길 물속에 잠겼고 94가구 297명이 이주하였다. 그나마도 사호정은 호수 제방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후손들의 슬픔은 피할 수 있었으나 농암대에 높이 앉아 사호의 모습을 희롱하던 그때가 다시 그립다. 자연부락 행정 이주는 산외 남기리 기회 송림마을로 만들어졌지만 생활 터전은 물속에 전부 잠겨 버렸다. 모내기를 하고 ‘솥 씻어 놓고 기다린다.” 말이 있을 만큼 물이 풍족하여 풍년이 들었다는 이 마을의 이야기는 마을과 함께 전설 속에 잠겼다.

고향을 그리는 망향동산에는 아득한 물속의 농암대를 내려다보는 농암정이 향수를 달래주고, 망향비 앞면에는 점필재 선생의 ‘고야산’ 시 한 수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름들이 새겨져서 보는 이의 가슴에 물결을 일으킨다.

밀양댐의 명칭은 밀양에 있다고 밀양댐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密陽(밀양)과 梁山(양산)의 앞 글자를 따서 밀양댐(密梁댐)이라고 부른다.(밀양산하 중, 일부 발췌)



姑射山 (고야산)

첨필재 김종직

九曲飛流激怒雷 (구곡비류격노뢰)

落紅無數逐波來 (낙홍무수축파래)

半生不識桃源路 (반생불식도원로)

今日應遭造物猜 (금일옹조조물시)

아홉구비 폭포마다 성난 우뢰 부딪치고

낙화는 가이없이 물결 따라 쓸려가네

반생토록 몰랐어라 도원길이 어디먼지

오늘에야 만났거늘 조화옹이 시기하네.

23



바드리마을



단장면의 동남쪽 경계에 위치한 동리로 산천과 수석이 빼어난 명승지이며, 밀양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 일오치, 이바드리, 삼감물리라고 할 만큼 높은 지역이다. 그리하여 고랭지 채소로 이름난 곳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사과, 배, 석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서남쪽으로는 평리, 서북쪽으로는 삼거와 인접해 있으며 이 마을 뒷산인 백마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드리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본래 바드리마을은 평리마을에 속한 자연마을이었으나 기존 본동인 평리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2017년 1월 1일자로 분통되어 하나의 행정마을로 편성되었다.



바드리는 바오달리라는 말로써 옛날에 군사가 진을 친 자리를 말한다. 옛날부터 일오치, 이소월, 삼감물이라 하여 밀양지역에서 세 고지대의 하나로 꼽는 마을이다. 일조(日照)가 좋아 고랭지 채소 재배로 유명한데 특히 바드리 무는 전국에서도 유명하다. 마을 근처에는 ‘소월산태두외(所月山泰斗外)’라고 하는 명당자리가 있다고 전해진다.

바드리마을은 해발 500M에 위치한 고지대 마을로 밀양의 3대 오지 마을이다. 예부터 일오치, 이소월, 삼감물이라 하여 밀양의 3대 고지대 마을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서 두 번째 소월이란 곳이 바로 이곳 바드리 마을을 뜻한다. 바드리마을로 올라가는 길은 밀양댐 아래에서 올라가는 길과 표충사 부근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밀양댐 아래에서 올라가는 길은 시멘트 포장길

◆ 바드리마을

이다. 경사도 높고,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도 꽤 있어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좁은 산길 따라 주욱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바드리는 2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이다. 신축 건물과 빈집이 어우러져 있다. 마을이 형성된 곳은 비교적 평평하고, 앞이 트어있어 밝고 깨끗한 풍경이다. 공기도 좋다.

바드리마을은 표충사까지 거의 다 와서 사자평 명물 식당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사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하지만 예전에 비해 길이 많이 정비가 되어 크게 불편함은 없다. 마을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서 내려다보면 표충사 방면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거의 산 정상까지 오르막길을 올라서면 능선을 따라 비교적 평지 길이 나오고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온다. 솔바람을 맞으며 가다 보면 바드리마을 입구를 알리는 표지석이 보인다. 마을 표지석을 지나면 해발 776M의 백마산 봉우리가 손에 닿을 듯이 가까이 보인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밀양댐 일대와 이곳 바드리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만나볼 수 있는 멋진 등산 코스다. 마을 입구에는 백마산 등산로 표지판이 있다.



마을 초입으로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바드리 달빛 연수원이란 곳이 보인다. 바드리마을 주민들이 주인인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런 오지 산골 마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다.

바드리마을

달빛 연수원을 지나 마을 중간쯤에서 뒤쪽을 올려다보니 백마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명당자리
임이 짐작되는데 실제로 이곳 인근에는 ‘소월산태두외’라는 명당자리가 있다고 전해진다.

바드리마을은 산 중턱에 위치하다 보니 고랭지 채소 농사를 많이 짓고 특히 바드리 무는 전국



26

에서 유명하다고 하며 최근에는 사과, 배, 석류 등의 유실수 농사도 많이 짓는다고 한다.
마을 뒤쪽으로 향하는 돌담길 골목이 있다. 이곳으로 귀촌하여 된장 담그는 농가도 있고 여래
사라는 작은 암자로 향하는 골목길이다. 오르는 길에 관리가 아주 잘 된 사과 과수원을 지나
치게 된다. 백마산 정기를 품은 아담한 여래사라는 암자도 보인다.

바드리(所月里) : 평리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산등성이가 평펴짐하고 제법 넓은 들
이 있는 고지대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은 백마산으로 아득한 옛날에 산사태가 쳐서 반달 모
양으로 형성된 소월산이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이 바드리가 되고 소월리(로 표기하였다.

바드리는 밀양 3대 오지 중의 한 마을로 버스가 운행되지 못한다. 그래서 2015년부터 ‘100원
택시’가 도입되었다. 1인당 100원을 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 태워주
는 교통복지 택시다. 그 덕분에 주민들은 그나마 쉽게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

평리마을



단장면의 동남쪽 변경에 위치한 동리로 산천과 수석이 빼어난 명승지이다. 서북쪽의 이웃 동리인 범도리, 아불에서 구절양장과 같은 고사천 계곡을 거슬러 남하하면 평리, 고례, 사희동, 덕달 등 자연 마을이 그림 같은 산수 속에서 차례대로 전개되고, 동북쪽에는 또 다른 승경 속에 풍류동이란 산상 별구가 숨어 있는 곳이다. 동남쪽에는 향로봉의 높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가운데, 서쪽에는 뇌암산을 사이에 두고 국전리와 이웃해 있으며, 북쪽으로 높다란 산봉우리 너머에 구천리, 범도리와 경계를 짓고 있다.



27

동리의 서북쪽 범도리에서 들어오는 들머리에 있는 마을이다. 고사천을 끼고 있으며 비교적 들판이 넓은 이 지대는 지금은 2001년 11월 완공된 밀양댐으로 수몰된 고례천 상류 부근인 농암대서 흘러내리는 급류로 많은 토사가 쌓여서 이루어진 비옥한 평지 지대이다. 평리(平里) 또는 평리(坏里)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들판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통(洞) 안에서는 전답이 제대로 갖추어진 행정 부락의 하나이다. 이 부락 건너 하천가에 모래동(사동)이라는 뜻(한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데 모여 있는 구역)이 있고 동편으로 골짜기를 한참 들어가면 풍류동이라는 아름다운 땅이 자리 잡고 있다.

평리마을

밀양댐 아래 “평평한 들판”이라는 뜻을 담은 평리마을은 지난 2004년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민박과 주말농장, 민물고기 체험, 뗏목 타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이 마련된 청정자연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이다.

밀양 IC에서 금곡 교차로를 따라 쪽 가다 보면 마을이 나온다. 옆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를 구경하는 것도 잠시 마을 입구에 커다란 장승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이를 지나면 마을정보센터가 보인다.

다리를 건너니 발아래로 징검다리가 눈에 띈다. 거친 물살 사이로 징검다리가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커다란 바위 2개가 눈에 띈다. 그 바로 앞으로 소원바위라 적힌 돌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데, 커다란 돌 위로 조약돌을 쌓은 돌탑이 있다. 돌탑 뒤편으로는 자연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개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니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북적댔다. 고사천이라 불리는 이곳은 1급수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쉬리와 열목어, 어름치 등의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도 마련돼 있다.

개울 뒤로 성인 10명 정도가 한 번에 탈 수 있는 크기의 뗏목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여름체험으로 뗏목 타기 체험을 비롯하여 농작물 수확체험, 염색체험, 메기 잡기



 평리마을

체험 등을 운영 중이다. 체험은 모두 10명 이상 단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다. 개울을 오르니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풍경이 펼쳐졌다. 옥수수밭과 대추까지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마을에 다다르자 메기 잡기가 한창이었다. 그물로 된 하우스에 들어가 그물로 메기를 잡는 형태이다.

- 평리(平里, 坪里)

구천 삼거리 쪽으로 길이 나 있는 산상의 별구인 소월리(바드리)와 번데기마도 행정적으로는 평리에 소속된 취락이다. 조선조 정조 때에 월간 구경이 이 마을에 시거한 후 능성 구씨의 세 거지가 되었으며, 1975년에 추모제를 세워 보존하고 있다.

- 풍류동(風流洞)

평리 마을에서 바드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다. 바드리 아랫마라고도 한다. 이 마을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여러 가지 지명이 있는데, 마을 앞에는 풍수지리의 옥녀혈이 있다 하고, 동서 쪽으로는 '동동재'라는 고개가 있으며, 아래쪽 물 가운데 북바위가 서 있고, 그 위 쪽에는 통소바위가 있다. 또 이 바위 위쪽에 있는 산을 '칭칭이산'이라 하니 모두가 풍류와 관계되는 지명이다. 곧 통소를 불고 북을 치며 칭칭나네를 부르고 춤을 추는 풍류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풍류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구천리

이 마을은 원래부터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귀내(龜川)의 천명(川名)으로 인하여 귀내 또는 구내라 하였고 구천(龜川), 구천(仇川)으로 표기되었다. 이 마을을 원래의 구천(九川) 곧 원구천(元九川)이라 한 것을 보면 아홉 개의 시내 때문에 생긴 지명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구천리에는 구천마을, 삼거마을, 시전마을이 있다.



구천마을



이 동리(洞里)의 지명을 나타내고 있는 마을인데, 표충사의 서북쪽 정각산 동편 기슭에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북쪽 골짜기로부터 남으로 내려오면서 정승동, 재말리, 도래재, 귀내, 삼박골 등의 자연 땀이 차례대로 두 갈래 하천을 따라 산재해 있다. 구천이란 지명은 흔히 재약산 동서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아홉 개 계천이 합쳐지는 마을이라 하였고, 고사구곡의

◆ 구천마을

상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도 한다. 주소득원으로 사과, 대추, 노지깻잎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31

이 마을은 원래부터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귀내의 천명(川名)으로 인하여 귀내 또는 구내라 하였고 구천(龜川), 구천(仇川)으로 표기된 것이다. 삼거, 시전을 포함한 구천리라는 법정리가 정해진 것을 보면 이 마을을 구천(九川) 곧 원구천(元九川)이라 한 아홉 개의 시내 때문에 생긴 지명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밀양에는 오지라 불렸던 마을들이 몇 군데 있었다. 밀양시 단장면 구천마을 정승골도 그중 한 곳이었다. 도로와 교통이 좋아지면서 오지라 불리던 곳에는 길이 생겼고, 전깃불과 인터넷이 짹짱하게 터지면서 요즘은 조용한 오지만을 찾아서 캠핑을 즐기거나 충분히 휴식을 즐기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때, 밀양 3대 오지 마을로 불렸던 마을이지만 현재는 편의 시설이 도시 못지않으면서 주변 자연과 공기는 오지 마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깨끗한 대기 질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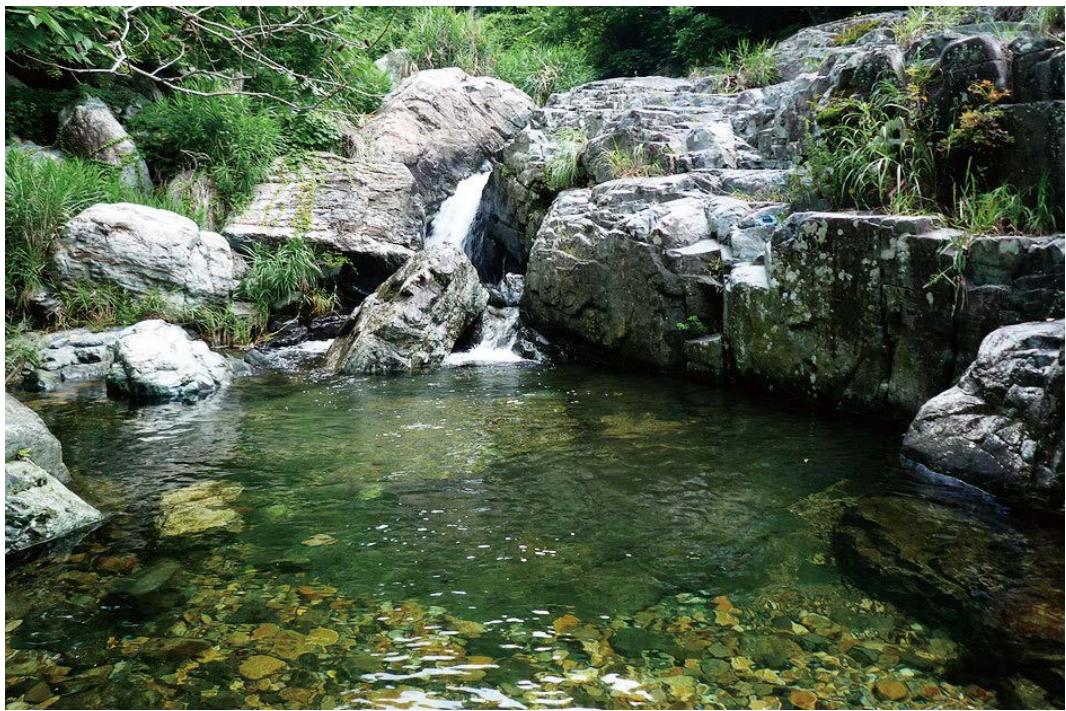
구천마을

구천마을의 자랑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한 특산품 표고버섯과 400년 역사를 가진 밀양 대추, 온도차가 높은 곳에서 생산된 맛 좋은 구천 마을 사과이다.

초여름 개망초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 조용한 마을이다. 마을 뒤로 보이는 깊은 골짜기가 이 곳에서 차로 4Km 넘게 더 들어가야만 만나는 밀양 정승골 계곡이다.

밀양 정승골 가는 길에 단장면 구천 마을 조금 못 가서 구천계곡을 만날 수 있다. 구천계곡은 밀양 도래재와 정승골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의 합수지점으로, 물이 차면서 아주 깨끗한 계곡이다. 계곡물은 비가 내릴 양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야영과 캠핑이 모두 가능한 밀양 구천마을, 구천계곡은 여름에 계곡 물놀이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구천계곡 주변으로도 펜션과 리조트, 숙박시설 맛집들이 많이 있다.



- 아랫마(下村)

원구천 본류(한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데 모여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 여러 뜻 가운데서 제일 큰 마을이라 하여 대촌이라고도 부른다. 아랫마라는 것은 원구천의 아래 쪽에 있다 하여 붙인 것이다.

◆ 구천마을

- 중마(中村)

원구천 아랫마 위쪽에 있는데, 잿마로 가는 중간 마을이라 하여 불인 지명이다. 대촌에 비하여 조금 작은 마을이다.

산막골(山幕谷, 삼박골, 삼막곡)

원구천 중마에서 잿마로 가는 중간쯤에 있다. 처음에는 화전민들이 산막(山幕)을 지어 살다가 차츰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산막곡(山幕谷)이라 한 것이다. 또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심마니들이 막을 지어 살았다 하여 삼막곡이라도 했다. 삼박골은 산막골의 변음이다.

- 잿마(嶺村)

삼막골 위 산등성이에 있는데, 고갯마루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잿마가 되었다. 감자가 잘 되고 맛이 있다고 한다.

33

- 정승동(政丞洞, 政丞谷)

원구천 아랫마에서 구천을 따라 3km쯤 들어간 산골짜기 마을이다. 옛날 신라 시대 때 어느 왕자가 고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재약산의 약물을 마시고 있을 때 수행한 정승이 머물며 대기 하던 마을이라는 전설이 있다. 또 조선조 어떤 정승이 귀양살이 한 곳으로도 전해 온다. 근대에는 천주교도가 박해를 피하여 숨어 산 곳이라 하여 순례하는 천주교 신자들도 있다.

- 도래재동(도래재말리, 回嶺洞)

원구천에서 산내면 남명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회령이며, 그 중간 산허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원구천과 같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으나 지금은 폐동이 되었다. 도래재말리라고도 한다.



이 동리 서쪽 들머리에 있으며 범도리 아불과는 시전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자연 마을이다. 아불, 표충사, 원구천으로 나누어지는 세 갈래 길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삼거리 또는 삼가리라 하였고, 시전천과 구천의 두 내(川)가 합류하여 범도천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 하여 삼계리, 삼가리라고도 한다. 김해 김씨, 김녕 김씨, 나라 정씨, 밀양 박씨의 집성촌이며 주 소득원으로 대추, 버섯, 돼지, 소 벼가 주소득원이다.



34

옛날부터 징검다리가 유명했으며 하천 양옆에는 원구천의 도래재와 양산의 통도재를 내왕하는 행인들을 위한 주막거리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분포도 옛날부터 표충사의 사찰 전답을 경작하는 소작 농민들이 많았다. 삼거리마을 들머리 산행 들머리는 편의점 앞에서 시작하며 도로 건너편의 전원주택지 개발 부지의 절개지 위쪽으로 등산로가 있다. 왼쪽 귀퉁이 민가 옆에서 산행 시작, 우측 경사면으로 오른다. 산행길이 반듯하다.

2018년 12월에는 삼거리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삼거경로당이 신축되어 2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경로당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박일호 밀양시장과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삼거경로당은 건축면적 $50.68m^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난 7월 착공해 5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됐다. 경로당 신축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 삼거마을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어르신들의 쉼터뿐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편안한 휴식공



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9년에는 산림청이 주관한 '산림 휴양치유마을(마을 만들기)'에 선정되어 지역 특산물인 대추, 표고버섯을 홍보할 수 있는 임산물박물관(홍보관)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스토리텔링 안내판 등 소통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특산물 홍보, 산림 편의시설 및 수목을 활용한 체

험 및 생산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35

- 삼막골(蔞幕谷, 삼밭골)

삼거리 동남쪽 바드리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편 첫 번째 골짜기이다. 옛날 이 곳에 인삼을 재배했다 하여 삼밭골 또는 삼막골이라 했다.

- 동우샘(童牛泉)

삼거리 마을 뒷산으로 약 500m 거리에 있는 자연적인 우물이다. 이 마을 초동들의 놀이터이기도 한데 아이들이나 소나 가릴 것 없이 물을 마시는 곳이라 하여 동우천이라 한다.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는 일이 없다고 한다.

- 약물샘(藥水川)

사거리 돌정지 뒤쪽에 있는 절벽 사이에서 쓰며 나오는 물을 일컫는다. 보통 때는 물이 스며 나오지 않지만 돌정지에 치성을 드리면 3년에 한 번쯤 7월 7석을 전후하여 새어나온다고 한다. 옛날에는 이 물이 바위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절벽 밑에 샘이 있어, 특히 '문동병에 효험이 크다'하여 유명했다. 이 소문을 들은 원근의 문동병 환자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샘을 묻어 버렸다. 그 뒤부터 절벽 바위 틈새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고 한다.



밀양시의 동북쪽 경계에 위치한 산악 지대의 고촌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태산준령이 연봉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영남알프스' 가운데 대표적 명산인 재약산 아래 표충사의 사하촌이다. 그러므로 이 동리는 표충사의 전신인 영정사와 그 역사를 함께 해 온 곳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찰의 연혁을 기록한 '영정사고사적(靈井寺古事蹟)'이란 문헌에는 창건 당시인 신라 흥덕왕 4년(829)에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창건주 황면선사에게 찬송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밀주구지(密州舊誌)의 중동면 방리조에도 이 동리를 바로 영정사와 재약으로 표시하였다.



재약은 재약산의 줄인 말로 생각되지만 옛날 신라의 어느 왕자가 이 산의 샘물을 마시고 고질 병이 나았으므로 그 자리에 절을 세워 영정사라 하였고, 약이 실린 산이라 하여 재약산으로 이름 지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또 산중에는 부속 암자(庵子)로 상운암, 사자암, 안영암, 금강암, 반야암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없어졌고 탁영당, 학암 광평, 금강대 등의 유적들도 지명만 전해올 뿐이다. 동리의 동쪽으로는 재약산을 주릉으로 하여, 울주군 상북면과 양산군 원동면과의 경계를 이루었고, 서쪽에는 정각산 줄기를 사이에 두고 산내면 임고리와 면계를 이루었다. 남쪽에는 향로산 준령과 시전천 흐름 사이로 고례리,

 시전마을

범도리와 이웃해 있고, 북쪽으로는 해발 1189m의 천왕봉을 분수령으로 산내면 남명리와 경계를 짓고 있는데 곳곳에 물소리가 요란한 계류와 폭포, 묘봉과 수해(樹海)가 비경을 이루고 있는 남도 제일의 명승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동리에 형성된 전래의 취락은 영정사의 사하 촌에 해당하는 지금의 시전과 구천(仇川) 또는 구천(龜川)이라 불리어 온 원구천(元九川) 마을, 그리고 삼거리(삼가리) 등 세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영정사 뒤편 사찰림에는 관죽전이 있어 화살대를 생산했으며, 재약산에서는 수백 가지 약초가 자생하여 특산물로서 유명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시에 종래의 구천리를 중심으로 시전과 삼거리를 아울러서 구천리(九川里)라는 법정리를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소속된 행정상의 단위 마을은 구천, 삼거, 시전으로 나누어지며 정승동, 회령, 산막, 구천, 서왕당, 매 바위, 토굴, 사자평 등 자연 취락이 산재해 있다.



시전마을은 영남알프스로 유명한 재약산 사자평 등산로 주변으로 사명대사의 전설이 살아 있는 표충사가 있고 산색과 경치는 물론이고 주변 토속 식당 18곳에서 건강한 밥상을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입맛까지도 사로잡고 있다.

표충사 주변으로는 재약산 등산로를 비롯해 우리 아이 마음숲 놀이터, 노

송이 어우러진 명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하루만 놀러 왔다 가기 아쉬운 장소로 1박 2일은 머물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놀이터 계단을 이용해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물에 물놀이도 할 수 있다.

우리아이 마음숲 놀이터 옆으로는 시전 마을 명상의 숲 산책로가 있다. 오래된 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이곳은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탄생이 되었다. 우리아이 마음숲 놀이터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전마을 송림이 나온다. 시전마을 산책로는 타원형으로 이어져있다. 그래서 산책로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된다. 결국은 같은 출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송림은 소산 터이다. 소산은 불교 용어로 화장터를 말한다. 시전마을의 주요사찰인 표충사가 있어 불교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았고,

시전마을

이는 화장문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 시전(柿田, 감밭)

삼거리와 표충사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부터의 대표적인 사하촌이다. 그러므로 이 마을 일대의 임야는 물론 대부분의 경작지도 표충사의 재산이었으며 시전이란 지명도 사찰용의 곶감을 생산하기 위한 표충사 감나무 밭에서 유래된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감으로는 곶감을 만들어 절에서 일용으로 쓰는 한편 적죽, 약재, 한지, 채소, 과일과 함께 관청의 공납품으로 진상하는 관례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대개 표충사와 관계가 있는 승려들의 가족과 사용인, 그리고 상인들이 거주하였으며 주민들 집과 대지, 경작지, 과일나무들이 아직도 사찰 소유로 된 곳이 많다. 시전에 소속된 뜸은 감 밭 이외에 서왕당, 매바위, 토굴 등이 있으며, 재약산 동쪽에 있는 사자평 언저리에도 민가가 있다.

38

- 매바위(鷹岩)

시전마을 동쪽에 있는 뜸(한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데 모여 있는 구역) 이름이다. 마을 뒤쪽 산에 ‘매와 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 하여 마을 이름도 매바위가 되었다. 또 매바위 근처에 실제로 매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 토굴(土窟)

지금은 표충사 정문 바깥에 위치해 있으나 그전에는 후문 밖이었다. 토굴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대처승들이 나와서 자고 가던 곳이었다고 한다.

- 층층폭포(層層瀑布, 毘盧瀑布)

표충사 남쪽 계곡을 따라 사자평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폭포이다. 이 일대의 아름다운 수석을 일컬어 옥류동천이라 하는데, 이 폭포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경관이다. 사자평 끝에서 떨어지는 물이 절벽에 층을 지어 떨어진다 하여 층층폭포라 하였고, 그 아래 소(沼)와 골짜기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비로폭포라는 이름도 있다.

- 금강폭포(金剛瀑布)

표충사 서쪽 계곡을 따라 서상암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폭포이다. 이 일대의 수석과 동학

 시전마을

을 일컬어 금강동천이라 하는데, 이 폭포는 그 대표적인 경승이라 할 수 있다. 폭포 떨어지는 자리가 깊게 패어 소(웅덩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옆에는 한계암이라는 암자도 있다.

- 사자평(獅子坪)

재약산 동쪽 기슭에 펼쳐진 해발 800m의 지대이다. 오래전부터 화전민이 밭을 일구어 살아오면서 고냉지 채소와 약재를 재배해 왔다. 일제 때는 이곳에 목장이 설치되었고 눈이 많이 내리면 산상 스키장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20여 호의 민가가 살아 고사리학교라는 산동초등학교 분교가 개설되었다. 수만 평의 평원의 억새밭이 유명하고 영남알프스의 대표적인 코스로 옛날 이곳에 사자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므로 지명이 사자평이 되었다.

- 사기굴(沙器窟)

표충사 동상암에서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비탈길 언저리에 수기의 도요지가 산재해 있다. 이것은 사자평 너머 울주군 상북면 지경에 있는 사적 제129호 천왕산 도지군과 연관이 되는 문화재로 주로 이 일대의 사찰용 기명을 굽던 곳이었으며 지금도 자기 파편이 많이 흩어져 있다.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서 왜군을 격멸하였으며 일본과의 강화사절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사명당 송운대사의 충의를 표창하여 나라에서 명명한 절이다. 신라 흥덕왕 4년 (829) 황면선사가 창건하고 진성여왕 때 보우국사가 방일선찰로 만들었으며, 1839년(현종 5년) 관음전 옛 자리에 사당 3칸을 신축하였다. 무안면 표충사에 있던 청허, 사명, 기허대사의 진영과 위패를 옮겨와 절 이름을 표충사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 고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국사(1206-1289)가 1천여 명의 많은 승려를 거느리고 수도하여 불법을 중흥하게 되었다고 하여 국왕으로부터 '동방 제일의 선찰' 이란 치하를 들었을 정도로 큰 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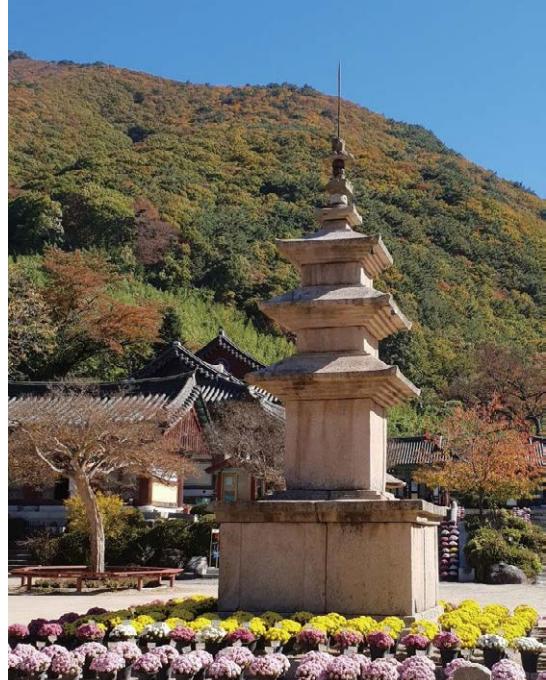
표충부전, 팔상전, 우화전, 응진전, 의중전, 죽도정사, 서광각 등 고색이 창연한 건물들은 이 절의 역사를 말해준다. 이 절은 국가 지정 국보 제75호인 표충사 청동함은향완, 보물 제 467호인 3층 석탑, 그리고 사명대사 유물 200여 종과 각종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다. 고승인 효봉스님은 표충사 서래각에서 그가 미리 말한 시간에 앉은 그대로 입적했다. 그의 사리탑은 표충사 와 본사인 송광사에 세워졌다. 표충사에 있는 효봉스님 사리탑은 목탁소리가 나기로도 유명하다.

한때 법당이 여덟 개, 지전이 네 개, 선방이 열일곱 개, 부속 암자가 15군데나 될 만큼 전성기를 누리었고, 절 뒤편에 큰 대밭이 있어 옛날부터 죽림사라는 다른 이름도 있었다. 현재 사찰은 국보가 한 점, 보물이 한 점, 민속자료가 한 점, 도 지정문화재 여덟 점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 표충사3층 석탑

표충사 경내 서편, 대홍원전 앞에 있는 석탑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1995년 해체 보수 공사 중 나온 유물은 탑 조성, 보수공사 등 이 탑의 역사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석가 여래 진신사리를 모신 탑으로 기단은 단층이다. 높이 7.7m로 기본적으로 신라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기단이 단층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며, 문경에 있는 봉암사 3층 석탑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각부 비례가 균형이 잡히고 전체적으로 우아한 작품이다. 상륜부에는 아직 칠주가 솟아 있고, 2층 처마 4귀에는 풍령이 매달려 있다. 칠주에 꽂혀진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수연 등이 남아 있다. 1968년 12월 19일 보물 제 467호로 지정되었다.



- 표충사 석등

8각의 간주 위에 상대석, 화사석, 옥개석을 갖춘 일반적인 석등으로서 현재 표충사 3층 석탑과 함께 있으나, 원래의 위치는 아닌 듯하다. 신라 석등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조각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시대가 뒤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석등의 높이는 2.4m이다.

- 청동합은향완

제작 연대는 고려 명종 7년(1177)으로 우리나라 향로로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며, 일본의 법륭사에 있는 향로보다 1년 앞서 제작된 것이다. 이 향완은 조선 선조가 사명대사에게 하사한 것으로, 표충사 탐진당 안 철제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다. 은입사 향로는 불전에 향을 사르는 불구로써 은입사 장식은 우리나라 청동기 공예품으로 고려시대 이래의 불교 예술품에서 볼 수 있으며, 12세기에 은입사 기술이 매우 세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완의 상선부의 변쪽

표충사



에는 여섯 자의 범자문을 상감하고 사이에는 서운문을 장식하고 있다. 화사의 바깥 면에는 동심원 속에 범자문이 들어있다 형태는 상하 양층으로 이루어진 원형 고배형이고 높이는 27.5cm, 구경 26.1cm인 향로이다.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75호로 지정되었다.



- 대원암(大願庵, 西往庵)

표충사 남쪽 입구 400m 지점에 있는 비구니암이다. 조선조 전기의 창건으로 추정되며 당초의 사명은 서왕암으로 신중암이라고도 한다.

- 내원암(內院庵)

표충사 북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산비탈에 있다. 법당과 요사, 부속 건물 몇 채가 있으며 창건은 조선조 초기이다.

- 동상암(東上庵, 眞佛庵)

표충사의 북동쪽 높은 산 절벽 위에 있다 하여 동상암이라 했다. 창건 연대는 고려시대이나 지금의 건물을 1844년(현종 4)에 월파대사가 재건한 것으로 사암의 편액을 진불암이라 했다.

- 서상암(西上庵)

표충사에서 서북쪽 산 절벽 위에 있다. 창건은 동상암과 비슷한 시기이나 거승이 없을 때가 많았다.

- 한계암(寒溪庵)

표충사 북쪽 금강폭포 옆 벼랑 위에 지은 암자이다. 1968년에 이 절에 주석한 석정화상이 건립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에 진주동과 동진주동을 중심으로 장재골, 갓돌, 열두들 등 자연취락을 모두 합하여 국전리라는 법정리를 삼았으며 해방 후에 다시 편의에 따라 동, 서로 나누고 국동과 국서로서 행정마을을 개편하였다.

국전리에는 국동마을과 국서마을이 있다.



국동마을



단장면 지역 중심부에서 남쪽 끝까지 기다란 배 모양의 형국을 한 동리다. 북쪽에는 해발 600m의 벼락 더미를 정점으로 하여 범도리, 고례리와 경계를 이루었는데 마치 뱃머리처럼 뾰족하게 돌출하였고 남쪽에는 표고 750m의 높은 금오산이 면(面)의 최첨단이 되어 삼랑진 읍, 양산시 원동면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배의 꼬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동쪽에는 완만한 만곡선으로 배의 허리를 나타내며 고례리와 길게 인접해 있고 서쪽 또한 만곡의 선으로 반대편 뱃전을 그리면서 감물리와 이웃해 있다.

밀주지(密州誌)에는 이곳에 진주동과 동진주동라는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동리의 평면 지형으로 보아 진주동이란 지명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무릉동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 열려 있는 서북쪽 한 방향을 제외하고는 주위가 높고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깊은 골짜기 사이 사이에 협소한 경지와 함께 몇 개의 자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1914년 지방 행정구

국동마을



44

역 개편 때에 진주동과 동진주동을 중심으로 장재골, 갓골, 열두들 등 자연 취락을 모두 합하여 국전리라는 법정리를 삼았으며, 해방 후에 다시 편의에 따라 동, 서로 나누고 국동과 국서로서 행정 마을을 개편하였다.

국화전(菊花田, 菊田)

국화전은 북쪽으로 雷岩山(벼락드미)을 배경으로 동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중심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국화전이란 지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곳에는 일찍부터 복잡한 세상을 멀리 한 선비들이 국화꽃을 심고 풍절을 숭상하며 사는 아늑한 마을로 전해 오는 곳이다. 오래된 마을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숙종 연간에 이후종이라는 선비가 입촌하여 주거를 정한 후에 월성 이씨의 세거지가 되었는데, 그 후손으로 효자 이동순과 이정환의 처인 열녀 양씨가 나서 마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였다. 또 1923년에는 이씨 문중에서 그 선조인 양평공 이철견을 추모하기 위하여 추원재를 지어 보존하고 있다. 마을은 앞들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두 땅을 나누었는데 양지마와 음지마라 하였다. 양지마는 동쪽에 있다 하여 국동에 해당하고 음지마는 서쪽에 있다 하여 국서에 해당하는데 행정마을로 삼고 있다. 또 이 마을에는 근처 산에 닥나무가 많아 옛날부터 국화전 종이라는 한지 생산이 유명하다.

 국동마을

진주동(進舟洞, 晉州洞)

진주동은 이 동리의 북쪽 들머리에 있는 옛날부터의 마을이다. 진주라는 지명은 배가 나아간다는 뜻인데 배의 모양과 비슷한 이 동리의 지형에 들어맞는 이름이라 할 것이다. 진주동 혹은 진주동이란 지명 표기도 있으나 이는 진주동에서 차음된 것이라 여겨진다. 갓골과 장자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용포천을 이루고 그 하 을 중심으로 무릉동과 국화전을 이웃하여 비교적 넓은 들판을 마을 앞에 거느리고 있다.

금밭령(金田嶺)

진주동 앞산과 뒷산을 모두 가리키는 지명인데, 옛날부터 金과 銀이 나는 곳이라 전해져 왔다. 이러한 전설에 따라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이 광맥을 발견하고 이 곳에 업국화전(주)이라는 광산을 차렸다. 금, 은, 동, 아연을 채굴 정련하여 일본으로 실어 갔으며 해방 후에도 얼마 동안 채광을 했으나 지금은 폐광되었다.

45

장자골(長者谷)

국화전 동남쪽 깊은 골짜기 속에 있는 자연 마을이다. 옛날에 부자 가 이곳에 살았다 하여 장자곡이라 했는데 주민이 많을 때는 20여 호 가 넘었다고 한다. 마을 계곡이 유심하고 아름다워 그 길이가 3km나 된다고 하며 영월 엄씨의 세거지로 전해 오는 곳이다. 마을이 좁아 10대 가 넘도록 맏아들만 이 곳에 살고 자자들은 딴 곳에 가서 살게 했다고 한다.

2015년 단장면 일대에서 대규모의 아연-연 광화대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울산-밀양 간 고속 국도가 이곳을 통과하게 되면서 단장면 국전리에서 광산을 가행 중인 신동양광업상사의 의뢰에 의해 최진범 교수(경상대학교)팀이 2015년 2월부터 9개월에 걸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장면 국전리, 고례리, 구천리의 3개 지역 12구역에서 총 63곳의 광체를 노출시키고 확인했다.

단장면 일대에 배태된 아연-연 광화대는 정각산층 내 협재된 석회암을 모암으로 흑운모화강암이 관입함으로써 이를 교대시킨 스카른 광상이다. 스카른 광상은 동, 연-아연, 철, 텅스텐, 몰리브덴 등 주요 금속광물을 대규모로 배태하는 광상 유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세계적인 규모의 광산으로 개발되었던 강원도 상동(중석), 연화, 울진(연-아연), 북한의 금덕(아연-연) 광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매장량은 수백만 내지 수천만 톤에 이르며 특히

국동마을

금덕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로 3천억 톤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 광체들은 정각산층 내 석회암층을 교대 시키면서 수십 cm에서 수 m 폭으로 여러 개가 층리에 평행하게 발달하는데 길이가 수십 m 내지 수백 m로 단속적이지만 연장되고 있다. 광석의 품위는 아연은 최대 44.6%(평균 4.94%), 연은 최대 8.4%(평균 2.17%)를 보여주며, 현재까지 발견된 조사 지역의 전체 광화대에 대한 원광석 매장량은 천4백9십만 톤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금속으로 아연 44만2천톤, 연 26만8천톤의 양이며 (2015년 9월 말)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ME) 가격으로 환산하면 각각 9천3백억 원과 5천6백40억 원, 합계 1조 4천940억 원의 가치에 해당된다.

이번의 발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자원 산업의 실정에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지역에 따라 탐사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찾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기간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 없고 투자회수 리스크도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자원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자원 개발을 통한 새로운 자원의 확보는 당장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자원의 비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원 개발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서편(서부광체) 광산 죽개내 제 1 편의 1



서편(서부광체) 광산 죽개내 제 1 편의 2



단장면 지역 중심부에서 남쪽 끝까지 기다란 배 모양의 형국을 한 동리다. 북쪽에는 해발 600m의 벼락더미(雷岩峯)를 정점으로 하여 범도리, 고례리와 경계를 이루었는데 마치 뱃머리처럼 뾰족하게 돌출하였고 남쪽에는 표고 750m의 높은 금오산이 면(面)의 최첨단이 되어 삼랑진읍, 양산시 원동면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배의 꼬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동쪽에는 완만한 만곡선으로 배의 허리를 나타내며 고례리와 길게 인접해 있고 서쪽 또한 만곡의 선으로 반대편 뱃전을 그리면서 감물리와 이웃해 있다.



47

국서마을은 인심 좋고, 공기 맑고, 현주민과 귀농 귀촌인들의 단합이 잘 되고,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특산물은 대추, 표고버섯, 돌배, 도라지, 취나물, 고사리, 들깨 등이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공기와 물이 최고다. 이곳은 터의 기운이 좋아 생기 터라 불리는 곳으로 힘이 없고 우울하며 의욕 상실된 분이 오면 기운이 불끈 생기는 그런 터라고 한다.



국서마을

국서마을에는 남원 양씨 열녀비가 있다. 남원 양씨는 남편 이정환이 함경도 경흥 유배지에서 사망하자 여자 몸으로 남편 시신을 궤짝에 넣어 밀양까지 가져왔다고 한다. 그분의 남편에 대한 지극 사랑이 타의 귀감이 된다 하여 정문(열녀문)을 내렸다.

밀주지(密州誌)에는 이곳에 진주동과 동진주동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동리의 평면 지



형으로 보아 진주동이란 지명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무릉동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 열려 있는 서북쪽 한 방향을 제외하고는 주위가 높고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깊은 골짜기 사이사이에 협소한 경지와 함께 몇 개의 자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에 진주동과 동진주동을 중심으로 장재골, 갓골, 열두들 등 자연 취락을 모두 합하여 국전리라는 법정리를 삼았으며, 해방 후에 다시 편의에 따라 동, 서로 나누고 국동과 국서로서 행정마을을 개편하였다.

- 갓골(冠谷)


 국서마을

장자골의 서남쪽이며 국전 저수지의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마을의 지형이 갓모(冠帽)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지대가 비교적 높아 옛날부터 갓골무우 등 고냉지 채소로 유명한 곳이다. 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더 들어가면 금오산 기슭에 텁골(基谷)이 있는데 갓골에 소속된 옛날의 땅이다. 경주 이씨의 세거지라 한다.

- 텁골(基谷, 열두들, 十二阜)

갓골 마을 남쪽에 있는 금오산 기슭의 마을인데, 열두들이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주민 호수 12집을 넘기면 마을에 재앙이 생긴다는 전설이 있어 열두 집 이내를 유지한다는 뜻에서 열두 들이라는 동명을 붙였다고 한다. 약 50여 년 전에 어쩌다가 12집을 넘겨 13집이 살게 되었는데 그해 여름에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마을에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그 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두 집을 넘기는 일이 없다고 한다. 또 텁골이 개촌되기는 지금부터 350여 년이나 된다고 하는데 앞마을인 갓골의 본래 터가 이곳이라 하여 텁골이란 지명을 남겼다.

49


 남원양씨 열녀전

乾隆초에 경상도 밀양부 남가실에 梁潤海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양주운의 11대손으로 비록 누지낙남(陋地落南)하여 벼슬은 없으나 원래 충렬지가로 世業을 잊지 아니하고 농업에 힘썼다. 딸 하나를 두었는데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자질이 훌륭하고 효행이 출천하여 예의엄치를 모를 바 없어 일마다 민첩하니 사람마다 칭찬하였다. 세월이 흘러 여자의 나이 19세가 되어 일일은 그 부모 봉양의 예를 이루고자 할 때 국화촌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던 바 성은 이요, 이름은 진태인데 좌리공신 월성군 5세손이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나이 15세이고 시서백가를 통달하고 얼굴은 관옥 같고 모든 일에 어른스러웠다.

두 집 문별이 서로 같기로 乙亥년(1755년) 말에 결혼하여 금실이 중하여 동거 15년 만에 일남일녀를 두고 세월을 보내더니 甲辰년(1784년) 2월에 한 사람이 은근히 와서 이생원을 찾아 가로대 "나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으로 성명은 김생일이고 지금 대구 영중에 와 영위하는 일이 있고 경상감사도 친할 뿐 아니오라 하는 일이 거의 되었으되 다만 재물이 부족이라, 이생원의 성명을 높이 듣고 왔사오니 전일 못 보았다고 의심치 마시옵고 돈 백 량만 얻어 주시면 나도 좋거니와 이생원도 측량없이 좋은 일이 있사오니 부디 얻어 주옵소서" 하였다. 이생원이 그 사람의 거동을 보니 나이는 동갑이요 위인은 훨한 장부라 그 사람에게 혹할 뿐만 아니라 이생원이 또한 허랑한 고로 그 말을 곧지 듣고 남의 돈 백 량을 얻어주니 그 사람이 칭찬하기를 "

남원양씨 열녀전

수이 대구영중으로 오시면 반가이 보사이다" 하고 가더라.

이러구려 수삼색이 못되어 자녀 둘이 우연히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라 일월지간에 자녀 차차 죽으니 원명이 함께 하지 못하여 인사불성하여 그 처 양씨와 더불어 이르되 "우리 무자식함은 불효 삼천의 일대 죄라 하였으니 우리 부부 무슨 죄로 이생에 나와 앞을 인도하고 뒤를 거둘 혈육이 없는 고" 하며 부부 서로 통곡하며 박복한 이생원이 뉘를 믿고 이 집을 지키리오, 차라리 빌어먹어 나가 김생일을 찾아남의 돈이나 받아 갚으리라 하였다.

50

甲辰년(1784년) 6월 20일에 부부 서로 하직하고 집을 떠나 대구 영중에 가서 김생일을 찾으니 그 영중 사람이 이르되 "김생일은 본디 경기 사람으로 무고한 심사를 가져 은자를 지어 쇠에 올려 모두 은이라 하고 영중에 발매하여 감사께도 드리며 사람을 무수히 속이며 발매하다가 현발하여 감사가 잡아들여 천하 대적으로 절전 오십도 후에 일변 장문하고 진주령으로 이수하고 회송을 기다린다 하였다. 이생원이 그 말을 깊히 듣고 진주령에 찾아가니 또 그 영중 사람이 이르되 "김생일을 가두고 분부하시되 타압이나 같은 죄인을 찾는 자 있거든 잡아들이라 하였으니 그 대는 어디 있는고" 하니 이생원이 그 말을 듣고 옥문가서 옥졸을 불러 말하길 "옥에 간힌 김생일이 나와 같되 친한 사람이라 바삐 통기하여 달라" 하니 미처 알고 옥문을 열어 드리고 급히 관가에 들어가 아뢰되 형지가 수상한 사람을 고하니 영장이 바삐 분부하여 말하길 "바삐 잡아들이라" 하니 나졸들이 잡아 들이니 영장이 큰 소리로 말하길 "천하 대적 김생일을 가두고 그 여당을 잡지 못하였더니 네가 분명 여당이라, 자초를 알려라" 하였다.

이생원이 머리를 높이 들어 말하되 "이생은 원래 밀양 선비로서 글만 읽고 있었더니 한 날은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 나는 경기도 사람으로 대구 영중에 영위하는 일도 있고 감사도 친하고 영중에 하는 일이 있으되 돈 백 량이 부족이라, 이생원의 어진 성명 높이 듣고 왔사오니 돈 백 량을 얻어 주시면 대구 영중에서 놀며 장사하여 남는 것을 나누어 먹자 하기로 생이 그놈의 위



❖ 남원양씨 열녀전

인만 보고 남의 돈 백 량을 얻어 주었더니 삼색 만에 생의 팔자 무상하여 자녀들이 병이 들어 모월 모일에 차차 죽었으며 이생이 실성 발광하여 거리에서 죽어도 그놈을 찾아 남의 돈이나 받아 빚을 갚자 하고 왔더니 이 지경이 되었사오니 무슨 변명하오리까마는 생이 분명 그놈 동당이 적실하면 어찌 화약을 지고 불에 들어 오릿까, 명천지하에 애매하오니 엎드려 비 오니 영감은 백옥 같은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영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가로되 "종당 알려줄 것이니 아직까지 즉각 치시라" 하고 착칼 엄수 후에 순영에 논보하니 순상이 보시고 이정환의 실상을 나라에 장문하니 회송을 하였는데 김생일은 영으로 처참하고 이정환은 함경도 종성으로 정배할 사 밀양관으로 이수하니 밀양관이 감색을 정하여 종성으로 정배 하라 하였다.

이때는 乙巳년(1785년) 11 월이라.

이생원이 돌아와 그의 처 양씨와 더불어 슬픈 정회를 이기지 못하여 방성통곡 하니 마을 사람들이 잔인함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슬퍼하였다. 이생원이 손병사 댁에 가서 돈 열 량을 얻어다 그 처 양씨에게 주며 "우리 무자식하기도 서련 중에 내 인사 불민하여 진주령에 갔다가 나라의 죄인이 되어 의탁할 곳 없는 처를 두고 삼천리 밖에 귀양을 가니 이제 한 번 떠나면 언제 다시 오리요, 죽은 혼백이나 돌아올까, 살아서 보기는 오늘뿐이로다. 나의 무죄함은 명천이 알아서 천은이 지극하면 혹 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찌 다시 보리요, 저 돈 열 량을 가지고 한 달 양식이나 하여 부디 일신이나 보존하소서." 하며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하직하니 양씨 그 소매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우리 전생에 지은 죄로 일개 혈육이 없고 다만 두 몸이 함께 죽어 선산에 해골이 될까 하였더니 이제 삼천리 타도에 가 의지 가지 하나 없는 이 몸을 어디에 의탁하리요." 하며 붙들고 천지돈지하며 청도유천 지경까지 따라 가며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우는 듯하더라. 이생원이 그 거동을 보고 이르되 "고진감래하였으니 너무 서러워 말고 돌아가 일신을 보존하소서." 하니 양씨 대답하되 "여필종부는 여자의 도리라, 먼저 가시면 뒤에 가리다." 하고 서로 손을 나눠 이별하여 가니 그 처량함을 차마 보지 못할 네라. 양씨가 하직하고 한 모랭이 돌아오니 슬픈 마음 절로 나고 두 모랭이 돌아오니 답답하고 처량하다. 양씨 정상 참혹하여 눈이 부어 돌아서니 길을 보지 못하는지라 애통 중에 하는 말이 "우리 낭군 어느 때에 돌아올꼬, 수간두옥(數間斗屋)에 다만 일신뿐이로다." 양씨 처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슬퍼 통곡하더니 서산에 해가 지고 동녘에 달이 뜬다. 월하에 혼자 앉아 다시 통곡하며 말하길 "우리 낭군 어디까지 가셨는고, 삼천리 종성부에 귀양 행차 생각하니 앉아 선들 잡이 오며 누워 선들 잡이 올까, 애고 답답 내 신세야, 사후에 영 이별은 남 되도록 하거니와 살아생전 생이별은 인간 세상 못할 네라, 내 날 때 남도 나고 남 날 때 나도 났건마는 어찌 이리

남원양씨 열녀전

박복하고 무정할사 귀신이야, 자녀조차 영영 잃고 하해같이 깊은 회포 태산같이 높은들 뉘를 잡고 한탄할꼬, 소소한 찬바람이 창간에 들어온들 그 뉘라 막아 줄꼬" 하며 주야간에 울음으로 일삼았다.

촌사람이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길 "이생원이 인후하신 양반으로 남의 횡액으로 적소에 갔다 온들 천도가 신명하니 수이 돌아오시려니 부인은 너무 서러 마옵소서" 하였다. 양씨가 답하여 말하되 "그대들은 그 말씀 마옵소서, 천도야 신명한들 액운이 미진하니 어찌 돌아오시기를 바라리요, 낭군의 원로 행차 종성이 몇 천리인고 간간이 생각하니 슬픈 마음 더욱 난다, 원앙이 짹을 잃은 것 같은 화를 당하니 초목에 불나는 심사를 그 뉘가 막으리요" 하며 애통을 무수히 하더라.

하루는 추풍이 소슬하고 명월은 고결한데 월영(月影)을 벗을 삼아 우인(偶人)같이 앉았으니 한 조각구름은 바람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아들고 명월은 교교하니 낭군이 강림한 듯 구비 구비 쌓인 간장 하루 가고 이를 가니 첩첩이 깊어가고 간간한 서른 심사 한 달 가고 두 달 가니 첩첩이 새롭도다. 이러구려 세월이 흘러 일 년이 지난지라 양씨 나름 생각하되 삼천리 타도 길에 가다가 죽어도 낭군을 찾아가서 한곳에 죽으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다.

양씨가 선영에 하직하려 가서 절을 한 후 좌우를 둘러보니 계단 위의 망주석은 쌍쌍이 마주 서서 풍우를 피치 않고 눈서리를 무시하며 사시로 통곡하니 무심한 돌이라도 이렇듯 지내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석물만도 못할까 하고 마을로 내려와 친척과 이웃을 다 청하여 하직할 때 서로 악수 통곡하며 "종성적소로 낭군을 찾아 가오니 삼천리 먼길에 연약한 이내 몸이 어찌 다시 와 선영 수호하기를 바라리오, 시숙은 선영에 향화를 끊지 마옵시고 평안히 수호하옵소서" 하니 제족이 만류하며 "일개 부인으로 삼천리 먼 길을 어찌 외로이 가시릿까" 하니 양씨 대답하기를 "옛 글에 있르되 여필종부라 하였으니 가다가 죽더라도 낭군을 찾아 가리다" 하니 모든 친척이 양씨의 철석같은 마음을 만류하지 못하고 서로 손을 나누어 이별할 때 서로 통곡하니 그 정상을 차마 보지 못하였더라.

양씨 수 칸 두옥을 팔아 노자를 차려 행장에 넣고 이날 출발할 때 신발등이를 매고 작대기 집고 떠나가니 이때가 丙午년(1786년) 10월 13일이었더라.

양씨가 사오 일간에 대구에 도달하니 노자는 떨어지고 밭은 통통 부어 한 걸음걷기도 어려운 지라 이러구려 빌어먹어 가며 촌을 전전한 끝에 여러 날 만에 충청도 땅에 이르렀다. 하루는 가다가 무인지경을 당하여 기운이 다하여 길가에 누워 둉굴며 말하되 "가련한 이내 신세 이 땅에 죽어지면 낭군도 만나지 못하고 객지 고혼이 되리라" 하고 무수히 애통해 하였다. 길 가

❖ 남원양씨 열녀전

던 한 노인이 기진한 양씨를 보고 소매 한가운데서 차과를 내어 주며 "부인은 어디 계시며 무슨 연고로 이곳에 기한을 당하여 이렇듯이 욕을 당하시나이까? 이것이 비록 약소하오나 잠깐 기한을 면하옵소서" 하였다. 양씨는 이것을 받아먹고 기한을 면한 후 백배 사례한 후 "노인은 어디 계시며 이렇게 죽게 된 인생을 살려 주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라고 하였다. 노인은 대답하길 "적은 것으로서 너무 치하하시니 도리어 미안하오" 하며 양씨의 거주를 물었다. 양씨는 "나는 경상도 밀양에 살았으나 가군의 운액이 불행하여 남의 횡액으로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을 갔기로 낭군을 찾아가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노인이 그 정열을 더욱 칭찬하고 말하되 "나 또한 경상도 합천 사람으로 이곳에 소관이 있어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오니 부인은 부디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며 갔다.

양씨 걸음을 재촉하여 십 여일을 가니 큰 마을이 하나 있어 들어가니 한 노구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그날 밤을 지낼 새 그 노구 양씨 행적을 묻거늘 양씨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 그 노구 눈물을 흘리고 목이 막혀 말을 잊지 못하거늘 양씨가 "노구는 무슨 연고로 내 말을 듣고 과도히 슬퍼하시는고?" 하니, 그 노구 기운을 차려 말하길 "나도 일찍이 가군을 수 천리 밖에 이별하고 자식도 없고 내 신세 부인과 같으나 나는 부인의 정열과 같지 못하여 능히 가군을 찾아가지 못하오니 도리어 한탄스럽습니다"하고 무수히 애통해 하였다. 양씨 이튿날 행장을 수습하니 그 노구 만류하며 "부인의 정열은 나와 다를지라도 마음은 같사오니 부디 하루 더 묵고 가옵소서"하였다. 양씨는 "하루가 삼추와 같사오니 어찌 하루라도 지체하리오"하면서 하룻밤 묵은 은혜를 치사하고 즉시 출발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영남은 멀어지고 관북은 거의로다.

여러 날 만에 함경도 명천에 도달하니 양씨 몸이 곤하여 길가에 앓아 울고 있으니 길 가던 사람이 물기로 "부인은 어느 곳에 살며 무슨 연고로 이곳에서 우나이까?"하고 물었다. 양씨 울음을 그치고 말하길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 낭군의 운액이 미진하여 삼천리 종성 적소로 갔는데 혼자 지체 없이 낭군을 찾아가다가 생각하니 자연 비감하여 우나이다."하였다. 그 사람이 양씨 신세 가련타하고 돈주머니를 열어 돈 서 돈을 주며 이삼일 요기하소서 하고 또 "여기서 종성이 멀지 않으니 부디 평안히 가옵소서"라고 하며 갔다.

양씨 이날은 몸이 피곤하여 종일토록 가도 겨우 십 여리를 왔는지라 한곳에 다다르니 산은 높고 골은 깊은데 사람은 없고 나무만 우거진지라. 날은 이미 저문지라 이때 안개구름으로 대설은 분분하고 거센 바람은 불어와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다. 양씨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속절없이 죽으려니 진퇴양난이로다'하고 두 손으로 더듬더듬 땅을 끌며 돌자갈을 헤아

남원양씨 열녀전

리며 솔가지를 더듬 잡아 암석을 의지한 채 눈바람을 피하여 잠깐 졸았더니 비몽 간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길 "부인은 이 심산 설야에 무슨 잠을 깊이 자시나이까? 부인은 이 길로 가지 마옵소서. 이 길로 가시면 호한을 만나오니 부인 오시던 길로 수리를 나가 서편으로 가면 종성이 멀지 아니하오니 부인은 빨리 잠을 깨어 가옵소서" 하였다. 양씨가 놀라 깨니 남가일몽이라. 양씨 그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서편으로 수리를 나오니 과연 큰 길이 있었다. 양씨 이 날은 암석에 밤을 보내고 눈바람을 맞아 더욱 기운이 소진하여 길가에 혼자 앓아 자탄하기를 "이 박복한 우리 낭군, 쌍인 눈 찬 바람에 어이 견디시는고" 하며 통곡하다가 이윽고 마음을 진정하여 마침내 출발하였다.

겨우 여러 날만에 종성에 다다르니 출발한 지 두 달 열흘 만이었더라.

양씨가 함경도 종성읍내에 가 앓으니 보는 사람마다 귀신인가 사람인가 불상타 하였다. 양씨가 낭군이 있는 곳을 물으니 남문 밖 김함경의 집에 기거한다고 하였다. 양씨가 그 집 문 앞에 가 앓으니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길래 '경상도 밀양에서 귀양 온 이생원이 이 집에서 기거한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 사람이 사실이지만 부인은 어디 계시며 무슨 일로 앓습니까'고 물었다. 양씨는 '내가 사는 곳은 곧 알려니와 빨리 연락하여 주소서' 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들어가 좌중에 알리니 모든 사람이 이는 만고에 없는 일이다, 죽어 혹 열부는 있거니와 이는 생전의 열부로다, 일개 여자의 몸으로 천리 타도 길에 가군을 찾아왔으니 어찌 범상한 사람일이리요 하면서 흘어져 갔다.

양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생원이 머리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면서 잠잠하거늘 양씨는 그 가군의 무릎 위에 엎드려 기절하고 말았다. 이생원이 양씨의 머리를 만지면서 조그만 여자의 몸으로 삼천리 길을 어찌 앓는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양씨가 기운을 차린 뒤 모든 사정을 낱낱이 고하고 측량없이 서러워하니 이생원이 양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너무 서러워 말고 기운을 진정하소서 하고 서로 통곡하니 보는 사람마다 울었다. 집주인 김함경이 그 거동을 보고 관가에 들어가 고하되 '경상도 밀양에 있는 죄인의 처가 양반의 부인으로서 두 달 열흘 만에 그 가군을 찾아 왔으니 그 절행이 거룩하여이다'라고 하였다. 관원이 그 말을 듣고 그 절행을 칭찬하고 관군으로 하여금 수 칸 두옥을 지어 주니 이생원이 그로부터 그곳 사람이 되었다. 이생원이 본래 지식이 많고 음양을 아는지라 이즈음 남의 묘자리도 잡아주고 택일도 하여주며 세월을 보냈다.

양씨는 솜씨가 있어 길쌈 품을 들고 남의 일을 하여주며 세월을 보내더니 그로부터 5년 만에

❖ 남원양씨 열녀전

이생원이 우연히 병이 들어 백약이 효험이 없었다. 불과 칠팔일 사이에 병세가 위중해지자 이 생원은 양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부부 이 삼천리 타도에 와서 서로 믿고 살다가 내 죽은 후 그대 한 몸 가련한지고, 삼천리 타도에 뉘를 믿고 이곳에 있으리요, 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그대 반드시 밀양으로 갈 것이니 내 해골을 어찌할 것인가, 슬프고 슬프고, 그대에게 이 말하기가 괴롭지만 그대 내 해골을 이 곳에 두지 말고 고향으로 운구하면 황 천으로 돌아가도 즐겁게 가오리다"하며 얼굴이 변하며 말을 잊지 못하였다. 양씨가 얼굴을 갖다 대며 '해골을 고향으로 운구할 테니 눈을 감고 편히 가옵소서' 하니 이생원이 양씨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양씨 정신이 아득하여 낭군의 시체를 안고 뒹굴며 대성통곡하며 '가련하다 저 사람이여, 나를 삼천리 밖에 두고 어찌하여 혼자 구천으로 가시는고' 하며 울었다. 보는 사람마다 모두 울었다.

양씨가 외빈(外賓)하려 하니 그곳 풍습이 사람이 죽으면 즉시 묻는 법이라 그곳 사람들이 이 곳 풍습대로 장사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양씨 생각하기를 해골을 고향으로 운구할 것이니 장사하였다가 건장이 되면 해골을 수습하여 이고 지고 가다가 길에서 죽어도 고향으로 운구하리라 금석같이 맹세하였다. 양씨가 촌사람을 불러 가군 생시에 이 곳 사람 이경순의 선산을



남원양씨 열녀전

정하여 주니 그 사람이 사고무친인 이생원이 죽으면 누가 돌보리까, 이생원 사후에 관곽 한 접과 백목 한 필, 돈 열 량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여기 문서가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 주소서하였다. 그곳 사람의 말을 들은 이경순이 그 말은 옳지만 관곽은 어렵다고 하자 양씨는 분격하여 관가에 들어가 문서를 올리며 전후 사정을 고하자 관원이 보고 대로 하여 경순을 잡아들여라라고 하였다. 나졸이 경순을 잡아들이고 관원이 분부하기를 너의 아버지 묘자리를 이정환이 잡아주고 약속한 문서가 여기 있거늘 만일 거역하면 엄히 처벌할 것이니 빨리 관을 만들어 주라고 하였다. 이경순이 관원의 명을 받고 나와 관을 만들어 주자 비로소 장사를 지냈다. (1부)

한문으로 된 《열녀 사인 월성 이정환 쳐 남원양씨지려, 烈女 士人 月城 李廷煥 妻 南原梁氏之》 비문과 《언문으로 된 행록》 등 두 종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문으로 된 행록》을 박순문 선생이 옮겨 적은 것을 실었습니다.

◎ 박순문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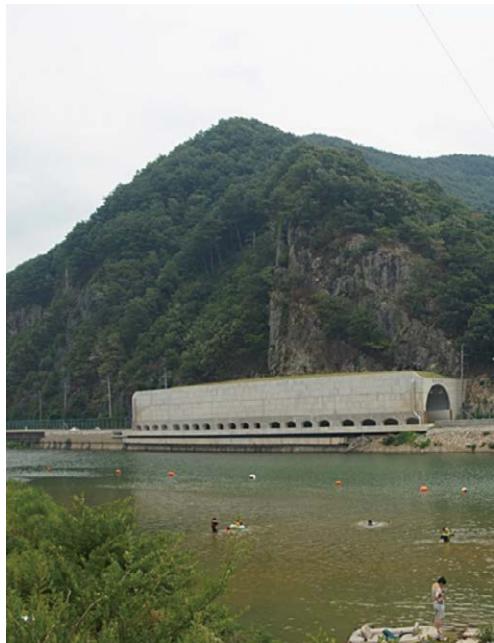
- 밀양 향토사학가
- 밀양문화원 부원장(전)
- 밀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전)
- 밀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위원(현)
- 박순문 변호사 사무소 대표(현)

7

단장리

세종실록지리지에 밀양도호부 관내에 도기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소재지가 부동의 단장리라 하였고,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이존록'에는 세종 때 대마도 정별을 하다가 전사한 그의 외조부 박홍신의 유의를 묻은 가묘가 단장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단장리라는 마을 이름은 조선 초기부터 이어온 것임을 알 수 있고 단봉정에서 유래한 단정이란 또 다른 이름도 전해온다.

단장리에는 단장마을이 있다.



57

단장마을



단장마을

동남쪽으로 계령산과 가내봉이 마을을 에워싸고, 북서쪽으로 단장천이 휘돌아 나가는 곳에
독뫼인 경주산(216m)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아늑한 고촌이다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여주 이
씨, 경주 최씨, 인동 장씨의 집성촌으로 주소득으로 대추, 맥문동, 벼, 노지깻잎 등을 재배하고
있는 마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밀양도호부 관내에 도기소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소재지가 부동의 단장리라
하였고,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이존록’에는 세종 때 대마도 정별을 하다가 전사한 그의 외조
부 박홍신의 유의를 묻은 가묘가 단장리에 있다고 했다. 또 조선조 전기의 인물인 진사 변홍
민이 단봉정이란 정자를 짓고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단장리란 마을 이름은 조선
초기부터 있어 온 것임을 알 수 있고, 단봉정에서 유래한 단정이란 다른 이름도 전해온다. 단
장 또는 단전이란 지명 표기가 있으나 이는 단장, 단정에서 음을 취한 것이며, 단구(丹邱, 丹
丘) 또는 조양(朝陽)이란 지명은 신선이 살고 봉황이 깃던 마을이라는 뜻으로 아름답게 붙인
것이다. 1890년경에 농은 이종곤이 입촌하여 단구정사를 짓고 거주지로 삼았으며, 뒤이어 금
주 허채, 포현 허대 형제가 김해에서 이주하여 주산서당을 세워 후진을 교육하기도 했다. 또
같은 시기에 주운 조훈, 동추 김만주 등도 정착함으로써 마을은 여주 이씨, 김해 허씨, 함안 조
씨, 김해 김씨, 밀성 박씨 등의 세거지가 되었다. 이 마을의 동쪽 산 너머엔 태롤리가 이웃해
있고, 북쪽과 서쪽에는 단장천, 금수를 사이에 두고 산외면과 면계를 이루었으며, 남쪽으로는
미촌리와 경계가 지어졌다. 1906년 아래 단장면 사무소의 소재지로서 면행정의 중심지가 되
었으나 그 후에 사무소를 태용리로 이전한 뒤에는 그 자리를 확장하여 홍제중학교를 세워 지
금에 이르렀다. 1920년경에 이병래, 이병년, 허석, 허연, 김문수 등이 동민을 규합하여 세운
조양서당이 있었고, 참봉 안홍원이 금수의 남쪽에 금수정(錦水亭)을 세우기도 했으나 지금은
모두 그 자취만 남았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시절, 거머리에 장딴지를 물어가며 모내기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
를 기억하는 마을 어르신을 만났다. 어르신의 “모노래”는 잘 넘어가는 아리랑처럼 농민들의
한을 풀어내시기에 충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가사로 개작하면서 노래를 부르셨던 모
내기의 손길은 농민들의 힘듦을 잘 달래주기도 했을 것이다.

단장마을
--모 노래 --

- A.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맷노
 B. 이 달 커고 저 달 커고 내 훗달에 열매 연다.
 A. 이 물끼 저 물끼 다 헐어놓고 주인양반 어디로 갔노
 B. 문어 전복 손에 들고 첨의 집에 놀러간다
 A. 한강에다 모를 부어 모 쪽 내기가 난감하네
 B.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 따기도 난감하네
 A. 저기야 가는 저 구름에 어느 신선이 타고 가나
 B. 명천하고 천자봉에 모든 신선 타고 간다.
 A. 좌우야 구름아 모여들어 억수창대 비가 오네
 B. 억수야 창대비가 와서 토수물이 골로 찬다.
 A. 오늘 아침 모인 동무 해만지면 이별이다.
 B. 숙자야 수건 목에 걸고 새는 날로 다시보자
 A. 바다야 같은 이 뜻자리 장기판 같이 닮았구나
 B. 장기야 판은 좋다마는 바둑 둘 사람이 전혀 없다
 A. 풍당풍당 찹쌀 수지비에 사위야 판에 다 올랐네.
 B. 사위야 판에 찹쌀 수지비 내 딸처럼 이쁘구나
 A. 낭창낭창 벼랑 끝에 무정하다 울 오라바
 B. 나도 죽어 후생 가서 낭군부터 섬겨볼래
 A. 명주야 바지 잔주름바지 못다 입고 황천 가네
 B. 칠십에 나는 노부모 두고 황천 가는 날만 할까
 A. 애이 쳐녀야, 너 볼라고 잡초 밭에 새길 난다
 B. 애이 총각아 너 볼라고 수채궁에 새길 난다
 A. 다풀 다풀 단발머리 해 다진데 어디로 가노
 B. 우리야 부모님 산소 땅에 젖 묵으로 내가 간다
 A. 저기야 가는 저 구름에 눈 들었나, 비 들었나
 B. 눈물비도 아니 들고 소리야 명창 내가 들었네
 A.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 찬이 늦어온다
 B. 방긋방긋 웃는 아기 젖 주다가 늦어졌다
 A. 장미화 곱다더니 깨어보니 가시로다
 B. 사랑이 좋다더니 따라가 보니 눈물이더라

단장마을

– 허씨 고가

문화재 자료 제110호로 1890년 (고종27)경에 구한말 학자 허채가 김해에서 단장면 단장리에 옮겨오면서 지은 저택이다. 허씨 고가에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 옛날 그 시절에는 이 지역의 농경지 8할이 이 택 소유였을 정도로 대단한 부잣집이었다고 한다. 시골 풍경이 푸근하고 편안해 보이는 허씨 고택 앞으로는 개울물이 있어 어릴 적 이곳에 거주하는 자제분들에게는 좋은 추억이었을 것 같다. 허씨 고가는 외부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과 터만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 분성 허씨의 허제가 김해에서 이곳으로 이사해오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큰 저택이었으나 지금은 정침, 중사랑채, 창고, 가묘만 남아 있을 뿐이다. 남아 있는 건물들은 모두 목조 기와집이다. 허씨 고가의 상징처럼 보이는 큰 나무는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수령이 굉장히 오래되어 보였다.

– 주산정

경주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김해 허씨의 정자이며 이 마을에 입촌한 후손들이 제자들을 모아 강학하던 곳이라 하여 주산서당이라고 하였다.



 단장마을

- 단장본동(丹場本洞), 단정(丹亭)

단장리는 본동과 창마로 나누어져 있고, 본동은 다시 큰골, 가라골, 아래각단 등 세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라골(험곡, 가래곡(佳來谷), 정곡면곡)

본동의 북쪽 냇가에 있는 마을인데 가래봉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얻어진 지명이다. 또 가락(전정자)처럼 가늘고 기다란 골짜기란 뜻에서 가락골이라고도 하며, 옛날 이 냇가에 걸인들의 수용소가 있었다 하여 갈(면)골이 가라골로 변했다고도 한다.

- 주산정(珠山亭)

단장 본동의 앞산인 경주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김해 허씨의 정자이다. 이 마을에 입촌한 금주 허공이 제자들을 모아 강학하던 곳이라 하여 주산서당이라고도 하였다. 1898년에 그 아들인 중와 허공이 지었다.

61

- 정질미(경주산(競珠山). 慶州山)

단장 본동 북쪽에 있는 독산로 높이 216m이다. 경주산의 음이 바뀌어 정질미가 되었는데 경주는 구슬을 다투어 뺏는다는 뜻이다. 이 독산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용암산, 또는 용회산 등 마치 용처럼 생긴 여섯 개의 봉우리가 구슬처럼 동그랗게 앉은 이 산을 다투어 빼앗을 것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 얹힌 전설로는 아득한 옛날에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마고할미가 이 산을 경주에 갖다 놓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다가 등글매의 밧줄이 끊어져 이 자리에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래서 경주산 또는 정질뫼, 등글뫼라는 지명이 생겼다.

- 서당골(書堂谷)

원래 이곳은 조선조 초기에 진사 변홍민이 살던 집터였으나, 1920년경에 동민들이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조양서당을 세웠다. 해방 직후 서당은 폐쇄되었고 건물은 마을 가운데로 옮겨져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양재라는 현판이 노인정에 걸려 있고 서당계가 존속되고 있다. 음달산 아래쪽에 계곡을 끼고 있어 경치도 좋은 곳이다.



단장마을

- 창마(倉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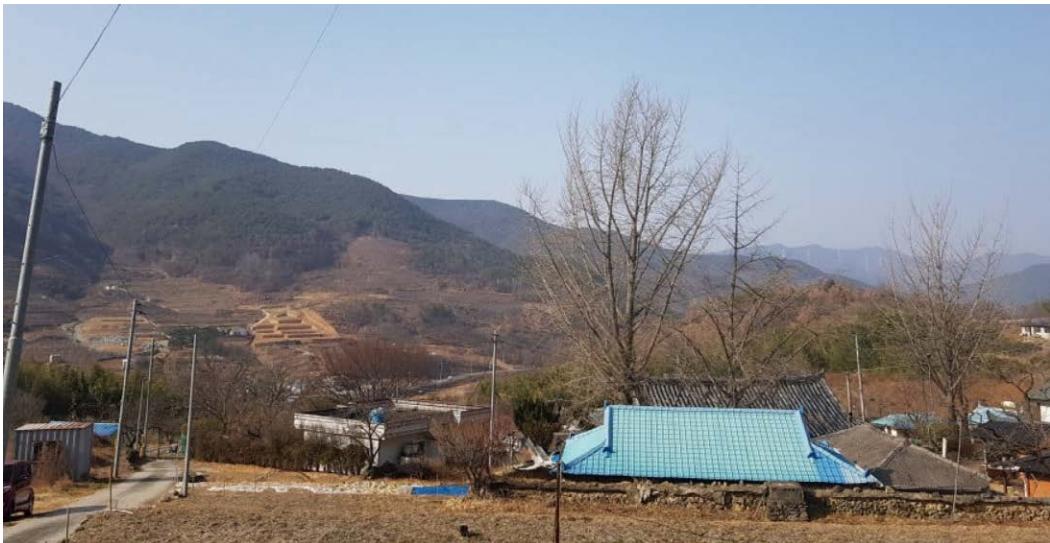
단장 본동에서 태롱리 용회동으로 가는 길목 왼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조선조 후기 이곳에 밀양부의 외동창을 두었다 하여 창마가 되었다. 그 후 창고를 산외면 금곡리로 이전했으므로 구동창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한때는 단장 본동과 아울러 법정리의 이름을 구동창리라고도 하였다. 해방 전후에는 불과 2, 3호의 주민이 마을을 지켰으나 지금은 수십 호의 민가가 들어서 있다.

- 선숲(단장숲, 선수(仙藪))

창마에서 용회동으로 건너가는 단장천 남쪽제방에 조성된 오래된 숲이다. 부엉디미에서 사당 소까지 약 1000m에 이르는 긴 자연림으로 수백 년 묵은 잡목이 울창한 곳이다. 숲 한가운데로 관개용 수로가 푸르게 흘러 봄, 여름, 가을에는 동민들의 휴양처로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신선들이 소요하는 숲이라 하여 선숲이란 지명이 생겼는데 근래에는 관광지로서도 각광을 받아 단장숲으로도 알려져 있다.

단장면(丹場面)의 중심 지대에 위치한 동리(洞里)이다. 구한말(舊韓末)에 발간한 밀주지(密州誌)에는 무릉동리(武陵洞里), 지사동(智士洞), 노곡(蘆谷) 등의 방리(坊里) 이름을 표시했는데, 모두 이 동리(洞里)에 소속된 것이며 관문(官門)으로부터 30리 거리라 했다. 산천(山川)이 수려(秀麗)하고 골짜기가 깊지만 비교적 수리(水利)가 좋은 경작지(耕作地)가 많아 옛날부터 살기 좋은 마을로 알려져 왔다.

무릉리에는 노곡마을 무릉마을이 있다.



노곡마을



단장면의 중심 지대에 위치한 동리이다. 구한말에 발간한 밀주지(密州誌)에는 무릉동리, 지사동, 노곡 등의 방리 이름을 표시했는데, 모두 이 동리에 소속된 것이며 관문으로부터 30리 거리라 했다. 산천이 수려하고 골짜기가 깊지만 비교적 수리가 좋은 경작지가 많아 옛날부터 살기 좋은 마을로 알려져 왔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시에 무릉동리를 중심으로 노곡과 지사동을 합하고 이웃해 있는 국전리, 태용리의 용포를 편입시켜 무릉리라는 법정리를 구성하였다.



자암서당 : 문화재자료 제 149호로 1913년 소눌 노상직 선생(1854~1931)이 망명지인 만주에서 돌아와 일생을 마칠 때까지 18년간 기거하며 학문 활동과 후진 양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의를 다한 강학소이다. 노곡동 표지석에 무릉교를 건너면 자암서당이 보인다. 본래 주위 산의 돌이 붉은빛을 띠고 있다 하여 자암서당이라 불렸다. 현재는 인적이 드물고 조용하지만 자암서당이 세울 당시에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곳으로 소문을 듣고 많은 선비들이 몰려온 정도로 북적북적했다고 한다. 소눌 문집 등 선생의 많은 저술이 이곳에서 간행되었다. 자암서당이란 노산 남쪽에 붉은 돌이 있어 이를 빌어 지은 것이라고도 한다.

'서당의 일상-자암일록'을 펴낸 정경주 경성대 한문학과 교수는 "1899년부터 1901년까지의 일지가 담긴 자암일록은 조선조 서당에 관계된 자료들 중 가장 상세한 기록"이라면서 "그동안 자암일록이 서당교육 논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긴 했지만 전문이 한글로 번역돼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일지에는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과 이에 대한 상별을 하던 모습은 물론, 소눌이 형 대눌, 벗 묵한장 등과 어떻게 교유했는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학도들의 생활 준칙을 규정한 춘첩, 일용십자, 학약 등의 내용도 있어 당시 서당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자암일록을 토대로, 근대식 교육과 서당 교육의 가장 큰 차이를 묻자 정 교수는 "한 마디로 1대1 밀착 교육"이라고 답했다. 아침에 누가 일찍 일어나서, 누가 뭘 했는지, 누구 집에 무슨 일

노곡마을

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기록하며 아이의 장점을 살려 주는 교육을 한 것이 서당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다. 또한 선량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서당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되어있다. 1등은 1명밖에 나올 수 없지만 효자는 집집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서당에서 배운 효를 실천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며 선량해진 아이들은 부모님, 나라를 생각하며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터득해 학습에 매진해 나갈 수 있다.



65

– 가실(갓실, 蘆谷)

용포천 동북쪽 하천 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골짜기 마을로 거 기에서 태용리로 나가는 길가 마을 용포동을 합쳐 하나의 행정마을로 삼고 있다. 가실(갓실)이란 마을 앞 물가 습지대에 갈대가 많이 난도고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밭, 자리, 삿갓 등은 옛날부터 평판이 있는 특산품이다. 이 마을에는 조선조 현종 연간에 참봉 박시성이 입촌 복거한 후에 밀양 박씨의 세거지가 되었는데 1950년에 그 자손들이 선조인 단암 박언복을 추모하기 위하여 모선재를 건립했으며, 그 이후에도 효자(孝子) 박연하가 그 아버지를 위한 노산정사를 지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또 구한말을 전후한 시기에는 우국지사인 대눌 노상익이 시강의 벼슬을 그만두고 그 아우인 유학자 소눌 노상직과 함께 이곳에 우거를 정한 후 광주 노씨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대눌은 이 마을에 풍뇌정을 짓고 나라를 근심했으며, 소눌은 자암서당을 세워 원근에서 모여든 많은 후진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지금 그 유적은 황폐하였다.

– 지소동(池所洞, 紙所洞, 池沼洞, 지시동, 지사동(智士洞))

외무릉 동남쪽에 있는 기다란 골짜기 마을이다. 옛날 이곳에 명당자리가 있었고 풍수지리의 명인이 살았다 하여 지사동(智士洞) 또는 지사동(地師洞)이라 했으며, 인근 마을인 국화전과 함께 종이를 생산하던 곳이라 하여 지소동(紙所洞)이라 하기도 했다. 또 마을 앞에 못과 늪이 있어 지소동(池沼洞)이라는 표기가 있으나 일반화된 동명은 지소동(池所洞)이라 한다.



무릉마을



단장면의 중심 지대에 위치한 동리이다. 구한말에 발간한 밀주지(密州誌)에는 무릉동리, 지사동, 노곡 등의 방리 이름을 표시했는데, 모두 이 동리에 소속된 것이며 관문으로부터 30리 거리라 했다. 산천이 수려하고 골짜기가 깊지만 비교적 수리가 좋은 경작지가 많아 옛날부터 살기 좋은 마을로 알려져 왔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시에 무릉동리를 중심으로 노곡과 지사동을 합하고 이웃해 있는 국전리, 태용리의 용포를 편입시켜 무릉리라는 법정리를 구성하였다. 밀양에서 단장면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금곡교를 만난다. 이 다리를 건너면 1077번 지방도가 나타나고 약 1.2km를 이어가면 큰 마을에 농협과 우체국, 파출소가 차례로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단장면사무소 거의 맞은편에 서 있는 이정표를 따라 태룡리, 이어서 국전 방향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우뚝 오른쪽에 교회 종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엔 총 100가호 정도 되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산다. 60호는 본동 사람들이고 나머지 40호는 외지인이지만 그들이 본동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고맙다.”고 하셨다. 또한 오래전부터 단장대추가 유명했고, 매실과 단감, 깻잎까지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 경제력이 따뜻한 마을이기도 하다. 그렇게 부지런한 마을 분들의 손놀림처럼 꾸역꾸역 찾아드는 사람 사는 마을이다.



- 무릉동(武陵洞)

무릉동은 이 동리의 중심 마을로 다시 외무릉과 내무릉으로 땀이 나누어져 있다. 외무릉(바깥무릉)은 용포천 서남쪽 하천변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마을이며, 내무릉(안무릉)은 남쪽 골짜기 깊숙한 계천변의 아늑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남북으로 길게 펼친 으슥한 계곡을 따라 물이 맑고 주변의 경색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선비들이 수양하며 은거하



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 왔다. 마치 진나라 때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의 별 천지와 방불하다 하여 이 마을의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개촌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영조 연간에 사인 이유정이 이 마을에 터를 정한 후 여주 이씨의 세거지가 되었는데 그 아우 죽와 이유수는 문과에 정언이 되었고, 아들 무릉옹 이종원과 초부 이종용 형제는 무릉재와 무릉서당을 짓고 후진(을) 교육하는 한편 이창을 설치하여 빈민 구제의 공적을 남겼다.

67

- 외무릉(外武陵, 바깥무릉)

무릉리의 본뜰이라 할 수 있다. 바깥쪽에 있다 하여 바깥무릉 또는 외무릉이라 한다. 태용리 와의 경계지점에 가까운 서향 마을이다.

- 내무릉(內武陵, 안무릉)

무릉 본동, 곧 바깥무릉 남쪽에 있는 크고 긴 골짜기 마을이다. 외무릉의 안쪽에 있다 하여 안무릉 또는 내무릉이라 한다.

- 용포동(龍浦洞, 龍包洞)

외무릉 북쪽 태용리 경계 지점에 있는 뜰 이름이다. 마을의 앞산이 용(龍)이 휘감고 있는 형국(形局)이라 하여 붙인 지명이다. 또 땀 앞에 모래섬이 있어 큰물이 지면 섬 둘레에 황톳물이 용트림하는 것 같다 하여 용포동이라고도 한다.

1914년 이전에는 태용리에 소속된 뜰이다.



미촌리

17세기 말에 발간한 밀주구지의 기록에는 이곳을 사촌리, 일명 제초동이라 하였고, 그 후 구며리와 덕성리를 합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삼았으나 1906년 지방행정 개편 때 구미(龜尾)를 구미(九美)로 표기하여 사촌을 아울러 미촌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조정에 따라 덕성리를 밀양읍에 이관하고 구미, 사촌, 안법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법정리로 미촌리를 두고 사촌과 구미를 행정마을로, 자연마을로는 사촌에 사촌, 구미에 동촌, 서촌으로 나누어 오늘에 이른다.

미촌리에는 구미마을과 사촌마을이 있다.



구미마을



미촌리 서남쪽 칠탄산 아래에 있다. 마을 앞으로 안법천이 흘러 서쪽에서 단장천(동천)과 합류하는 곳이다. 마을 뒤의 산세가 거북형으로 되어 있어 이 마을이 그 꼬리에 해당한다 하여 구미라 한 곳을 구며로 표기하였고, 다시 구미(九美)가 된 것이라 한다. 또 서쪽으로 뻗은 자씨산 북쪽 산 밑을 따라 흐르고 있는 동천에는 맑은 여울과 깊은 연못, 그리고 백사장과 밤나무밭이 펼쳐져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안동 손씨, 벽진 이씨, 김녕 김씨, 밀양 박씨의 집성촌이며 주소득원으로 대추, 시설하우스 벼, 단감 등이 있다. 마을 주민의 90% 정도 비닐

◆ 구미마을

하우스를 하고, 고추, 들깨, 꽃(화훼) 농사가 수익을 내고 있다.



69

17세기 말에 발간한 밀주구지(密州舊誌)의 기록에는 이곳을 사촌리, 일명 제초동이라 하였고, 그 후 구며리와 덕성리를 합하여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삼았다. 1906년의 지방 행정 개편 시에 구며를 구미(九美)로 표기하여 사촌을 아울러 미촌리라 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 조정에 따라 덕성리를 밀양읍에 이관하고 구미, 사촌, 안법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법정리를 삼음으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이 마을이 형성된지는 매우 오래인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난을 겪은 이후에 효자 손지겸이 복거함으로써 일직 손씨의 세거지가 되었으며, 1930년대에 우석 손승현이 그 선조를 추모하기 위하여 구산정을 건립했다. 구한말에는 구봉 이의택이 입촌하여 그 후 벽진 이씨의 세거지가 되었고, 기성 반씨도 이 마을에 들어와 터전을 잡았다.

칠탄정

문화재 자료 72호로 임진왜란 때 밀양 석동산에서 의병을 창의하여 충의를 떨친 선조 때 학자 오한 손기양이 만년을 보내던 별업으로 1844년 향중 사람들의 주장으로 경내에 청절사를 세웠다가 그 후 칠탄서원이라 편액 했다. 칠탄정이 있는 곳은 미촌리 구미 마을 뒤쪽의 칠탄산

구미마을

능선으로, 앞쪽으로는 밀양강의 지류인 단장천이 흐르고 있다. 칠탄정 바로 앞까지 차로 갈 수 있지만, 구미 마을에서 쉬엄쉬엄 걸어가는 것도 좋다. 칠탄정은 단장면 미촌리 구미마을 뒤편에 위치하여 차량으로도 갈 수 있지만 마을 어귀에서 차를 대고 가볍게 산책하듯 걸어가도 좋다. 1863년 창건 당시 모선재, 구호당이라 부르다가 1895년 화재로 소실되어, 5대손인 손기형이 1906년 중창하여 칠탄정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칠탄정은 일직손씨 시조인 손옹의 20세손이며 격재 손조서의 13세손인 칠산 손옹용의 묘하게 숙소로 철정 14년에 창건되었다가 소실된 것을 1906년에 중창한 것이다.



마촌마을



마촌리 동북쪽에 있으며, 마을 앞으로 흐르는 안법 천을 사이에 두고 구미 마을과 마주 보고 있다. 마을 뒤쪽에 솟아 있는 가마봉을 분수령으로 하여 단장리와 경계를 이루었고, 동쪽으로는 들판을 끼고 안법리와 이웃하였다. 본래의 지명은 사촌이며, 일명 제초동이라 했는데 남씨와 연관이 있는 이름이다. 밀양 박씨, 의령 남씨, 안동 손씨의 집성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소득원으로는 시설채소(꽈리고추, 깻잎 오이) 단감, 축산, 벼 등이 주 소득원이다.

사촌 들판의 비옥한 토양에서 대규모 생산되는 꽈리고추는 열매껍질이 부드러우며 수분이 많고 매운맛과 단맛의 특색이 강하고, 저장성이 좋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청과물 시장으로 판매된다. 또한, 청량 풋고추는 경북 청송과 영양 지방의 재래종을 육성 교배하여 만들어진 고추 품종으로 청송의 "청"과 영양의 "량"자를 따서 품명을 지었으며, 단장면은 약 8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 단장면 관내 청양고추 재배면적은 40 헥타 80 농가가 청양고추를 연중 재배하고 있다. 청량 풋고추는 맵지만 향긋한 향이 뛰어나며 열매껍질이 얇고 사근사근하며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기가 매우 좋으며 사촌 지역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사촌마을

사촌이란 선비의 마을이라는 뜻이 되고, 제초동은 중국 송나라 때 유현인 주희의 고향 무원현에 있는 남성 마을을 본떠서 붙인 이름인 듯하다. 곧 남씨의 자손들은 말이 풀을 뜯으며 길러지는 사마의 장(제초동)에서 조상의 덕업을 계승하고 말처럼 뛰어올라 출세를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밀주구지에 고인기라는 중국의 해학적인 설화가 실려 있어 그 지명의 유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마을은 1510년(중종5)에 판서 남지족당이 입촌한 이래 480년 동안의 령 남씨의 세거지가 되었고, 해방 후에는 그 자손들이 마을 가운데 지족당이란 문중 재사를 세워 추모하고 있다. 중종(1506-1544) 때 진사 남우문은 마을 앞에 침류정을 짓고 살았으며, 퇴계 선생의 문인 조암 남필문도 이곳에서 학문을 닦았다. 그 후에도 남계선, 남영길, 남이흔 등이 나서 마을을 빛냈다. 또 조선조 초기 이래 밀성 박씨도 이곳을 세거지로 삼았는데 박시문, 박이화가 그 뿌리를 내렸다. 조선 말기에 박지순은 금석정을 세워 문중의 터전을 굳건히 했으며, 박지열의 처인 열부 달성 서씨의 정절을 표창하는 비각도 마을에 남아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죽동의 밀성 손씨와 죽서의 일직 손씨의 일파도 이 마을로 옮겨와 세거지를 삼았다.



금수정(錦水亭)

보갓산 북쪽 기슭 중턱에 금수(錦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구한말 때 참봉 안홍원(安弘遠)이 세운 금수정(錦水亭)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이 터는 원래 밀성 박씨의 금석정(錦石亭) 자리였으나 1960년에 사촌 마을 뒷산 기슭에 중건하였다.

• 무재골(舞雩祭谷, 水祭谷)

화분 등 골짜기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에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무제란 무우제(舞雩祭) 곧 기우제를 뜻하며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제를 올린다는 의미에서 수제(水祭, 舞祭)라고도 한다.

• 매빼이 양달(鷹走嶝)

시리봉 남쪽으로 두 개의 평펴짐한 등성이가 있는데 각각 일자변동(一字反嶝), 이자변동이라고 하며, 매우 양지바른 곳이다. 매가 마을의 병아리를 채어 내빼는 곳이라 하여 매빼이라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이곳은 본래 미촌리의 동유림이었으나 해방 전에 안법 초등학교의

사촌마을

설립자금에 투자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매각했다고 한다.

• 양달들(양당들, 陽坪, 兩塘坪)

사촌 마을 뒤쪽, 구미 마을 동북쪽에 있는 들판의 이름이다. 동쪽과 서쪽이 확 트여서 햇빛이 비치는 양달에 있는 들판인데, 이곳에서 나는 쌀의 품질이 좋기로 이름이 있었다. 양당 봇물을 끌어대어 농사를 짓는다 하여 양당들이라고도 한다.

• 양당보(兩塘洑)

사촌 마을 뒤 양달들에 물을 대기 위한 원거리 보(洑)인데, 단장리 경주산 기슭의 사당수(泗塘水)와 금수(錦水) 어구의 석계당(石溪塘) 등 양당의 물을 끌어들이는 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이 보는 보갓산 북쪽 기슭으로 난 도로를 따라 봇도랑이 흐르고 있으며, 수량도 매우 많아 양달들, 집들의 관개(灌溉)를 충분히 하고 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물놀이하느라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없는 마트도 크게 들어서 사람들이 바지런히 드나들고 있다. 현재 양단보 관리는 마을 이장이 한다.



사촌마을

• 창마(倉村)

단장 본동에서 태롱리 용회동으로 가는 길목 왼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조선조 후기 이곳에 밀양부의 외동창(外東倉)을 두었다 하여 창마(倉村)가 되었다. 그 후 창고를 산외면 금곡리로 이전했으므로 구동창(舊東倉)이라 불렸다. 그리하여 한때는 단장 본동과 아울러 법정리의 이름을 구동창리(舊東倉里)라고도 하였다. 해방 전후에는 불과 2, 3호의 주민이 마을을 지켰으나 지금은 수십 호의 민가가 들어서 있다.

• 사복골(사북골, 司福谷)

사촌 마을 북산에 있는 절터골 동남쪽의 골짜기 이름이다. 사복이란 말은 사북의 변음으로 가위의 교차점에 박은 못과 같이 가장 요긴한 장소를 말한다. 이곳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 마을에 거주하던 진 사 남순길(南順吉)의 처 광주(廣州) 안씨(安氏)가 숨어서 피난하던 골짜기이다. 결국, 왜적이 욕을 보이려 하자 결사 항거하다가 무참하게 죽음을 당한 순절의 거룩한 장소이다. 전쟁 후 그 장소에 시신을 묻고 나라에서 정려를 내린 곳이라 하여 사복골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사복곡은 사복골의 한자음 표기이다.



동리(洞里)의 중심 마을로 메물산(木麥山)을 등에 지고 고사천(姑射川) 동편(東便) 강가에 자리 잡은 고촌(古村)이다. 마을 앞에 호수처럼 생긴 깊은 소(沼)가 있어 범도연(泛棹淵) 또는 도연(棹淵)이라 했으며 동리(洞里)의 지형(地形)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뜻단배 같다 하여 붙인 지명이라 한다. 또 범돈, 범든이라 하는 것은 범도연(泛棹淵)의 발음이 줄고 바뀌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범도리에는 범도마을과 아불마을이 있다.



범도마을



동리의 중심 마을로 메물산을 등에 지고 고사천 동편 강가에 자리 잡은 고촌(古村)이다. 마을 앞에 호수처럼 생긴 깊은 소(沼)가 있어 범도연 또는 도연이라 했으며 동리의 지형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뜻단배 같다 하여 붙인 지명이라 한다. 또 범돈, 범든이라 하는 것은 범도연의 발음이 줄고 바뀌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범도리의 본동인 범도마을 앞 단장천에 범도연이라는 소, 옛날엔 뱃놀이했다고도 한다. 밀양에서 승용차를 타고 양산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면 잘 알려진 고례댐이 나온다. 그곳을 가다 보면 단장면 범도 방향으로 이팝나무 가로수가 고례댐까지 5km 정도 터널을 이루듯 이어져 있다. 지난봄 흐드러지게 핀 이팝나무의 꽃이 고봉의

범도마을

쌀밥을 소복하게 담은 듯,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오는 봄의 아름다운 전경은 어디에다 비할 곳이 없었다. 여름이면 물놀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고례 댐 가는 길 입구에 범도마을이 있다.



76



조선조 후기에 국난에 이바지한 공로로 나라에서 표창을 받은 서운룡이 이곳에 터를 잡은 후 대대로 달성 서씨가 살았고, 같은 시기에 효행으로 이름을 얻은 오정몽이 입촌함으로써 해주 오씨의 세거지가 되기도 했는데 철종 때는 도사 오필선의 효자 정여가 내리기도 했다. 또 인근 죽림 안희원이 그 아버지 치와 안효완을 위하여 세운 도연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고, 다만 그 유허에 이선대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그리고 마을 남쪽 고례리와의 경계 지점인 박산(博山) 산 중허리에는 옛날 심진암이라는 절터가 있었고, 그 아래쪽에 1916년에 부북면 퇴로리에 거주하는 여주 이씨 문중에서 그 선조인 도원 이종극의 소요처라 하여 도원정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 구시방골못(凹谷池)

범도연 건너편 구시방골 뒷산 중턱 골짜기 안에 있었다. 옛날부터 이곳이 명당자리라는 소문이 있어 어떤 사람이 묘를 서고 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자가 된 이후에는 찾아오는 식객과 과객들 때문에 그 가모가 많은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술이 있다는 중 한 사람이 찾아들어 시주를 청하였다. 그 가모(家母)가 은밀히 중을 만나서 들판에 시주하고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한 끝에 과객과 식객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비방을 물었다. 중은 대답하기를 "비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터인데요."하고 난감해 했다. 이에 가모는 나중에라도 후회와 원망은 하지 않을 터이니 비방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그 중은 입맛을 다시며 마지못해 하는 듯하면서" 범도연 건너편 구시방골에 있는 선산 앞에 못을 파시오. 그러면 과객 식객의 발이 뚝 끊어질 것입니다." 하고는 떠나 버렸다. 가모는 바깥 주인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몰래 종복들을 동원하여 구시방골 선산 앞에 못을 파 내려갔다. 얼마쯤 못을 파 내려가는데 별안간 땅이 터지는 것 같은 폭음과 함께 땅속에서 김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그 자리에 못을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웬일인지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얼마 가지 않아서 집이 망해버렸다. 부자의 인색함과 가모의 분별없음이 복을 차버리고 화를 자초한 것이다. 지금은 못이 없어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77

- 뱃머리(船首, 移船臺)

범도연(泛棹淵) 마을 앞에 있는 깊은 소부근(沼附近)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옛날 이곳에서 뱃놀이할 때 배에 올라타는 곳이라 하여 뱃머리라고도 했다. 모두 범도연과 관계있는 지명이다.

- 보풀 고개

범도연 강 건너에 있는 산마루 고개의 이름인데, 국전리(菊田籬) 진주동(進舟洞) 등으로 넘어가는 곳이다. 보풀 나무가 많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 구실방골(凹岩谷)

범도연과 고례리의 경계 지점 길가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근처의 바위들이 구유 모양으로 둘러서 있다 하여 붙인 지명인데, 구시방이란 구유 바위라는 뜻이다.

범도마을

– 꿀뚝배기(煙突稜)

범도연 건너편 원쪽에 있는 산마루의 능선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마치 꿀뚝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 방미봉군(博山峰)

꿀 뚝배기 아래쪽에 있는 박산사(博山寺)(방미절)의 뒷산 봉우리를 말한다. 방미는 박산을 가리키며 봉군은 봉우리를 일컫는다.

– 안장설(鞍裝穴)

범도연 마을 뒷산인 미물봉(蔚山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 능선의 이름이다. 마치 말안장처럼 잘록하게 생겼는데, 삼거리 쪽에서 보면 미물봉이 말머리처럼 생겼고, 백마산(白馬山)은 말꼬리로 보인다는 것이다.

– 쇠태기웅덩이(궤어소(沼))

범도연 마을 고례리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산모퉁이 아래에 있는 웅덩이 이름이다. 물이 맑고 깊어 이 웅덩이에서 쏘가리(궤어)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쇠태기는 쏘태기 또는 꺽저기, 꺽지라고도 하는데 모두 쏘가리의 방언이다.



– 상둑들(上堤坪)

범도연에서 고례리로 가는 길가에 있는 들 이름이다. 위쪽 둑 안에 있는 들이라 하여 상둑들이라 했다.

– 보건냇들(洑越坪)

상둑들과 마주 보는 강 건너편의 들 이름이다. 보(洑)의 건너편에 있는 들이라 하여 생긴 지명이다.

아불마을



법도연 북쪽 메몰산 아래에 있으며 표충사행 국도변에 있는 큰 마을이다. 원래는 작은 주막거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1922년에 이곳에다 사립 표충학원을 설치하는데 이어 곧 태룡초등학교 산동분교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마을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 후 학교는 다시 산동초등학교로 승격되고 표충사의 어귀로서 버스정류소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지금은 산중 도방의 구실을 하는 마을이다.



79

이 마을의 본래 이름은 아화(阿火)라 했다. 옛날에 어느 노승이 지나가다가 큰 불이 나겠다고 예언한 일이 있었는데, 과연 2년 만에 마을에 큰 불이 났으므로 지명이 불길하다 하여 부처님의 가호를 빈다는 뜻에서 아불이라 표기한다고 한다. 이 마을의 서쪽 냇가에 있는 새마와 골마, 표충사행 국도변에 있는 석발탱이도 행정상 아불에 소속된 뜸이다.

밀양 이팝나무 길(이팝 꽃길)은 밀양시 단장면 아불 삼거리에서 밀양댐 생태 공원으로 이어지는 가로수 길이다. 약 6km의 밀양 이팝나무 길 양쪽으로 활짝 편 이팝나무가 늘어서 있다. 매년 5월이면 이팝나무 가로수가 꽃길로 변하며 장관을 자아낸다. 꽃이 활짝 피면 사발에 소복이 얹힌 흰쌀밥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밥나무가 이팝나무로 변했다고 한다.

아불마을

반계정

문화재자료 제216호로 영조 때 산림 쳐사로 이름이 높았던 반계 이숙의 별업으로 1775년에 창건했는데, 밀양강의 맑은 물이 감도는 강 언덕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운 것이 특징인데, 당시 고을 명류들과 어울려 청담하고 시를 읊었던 곳이다.



- 골마(谷村)

아불 본동의 서쪽에 있는 강가의 작은 마을이다. 정각산 아래에 위치하여 골짜기 안에 있다 하여 골마라는 지명을 얻었다. 옛날부터 정각산의 닥나무로 한지를 만들어 온 마을인데 ‘범든종이’의 본포가 이곳에 있었다. 구한말에 사인(土人) 이병관이 이 마을에 입촌하여 도연정사를 세우고 은거한 일이 있다.

새마(新村)

석바탱이에서 아불 마을로 가는 국도변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新村)라 하였다.

- 정각산 절터(正覺山, 鼎角山)

사연 본동 동북쪽 반계정 뒷산 중허리에 절터가 있고 종 모양의 돌부도가 있다. 1900년경에 이곳에서 돌부처가 나왔다고 하며 절은 없어졌다. ‘정각산에 있는 절이었다.’ 하여 정각사라 했는데 절은 없어졌다. 정각산(正覺山)은 일명 정각산(鼎角山)이라고도 하며 산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쇠뿔과 같이 생겼다 하여 솔뿔(鼎角)로 표기한 것이라 한다.

- 석바탱이(石田洞)

아불(阿佛) 본동의 서쪽, 단장천 건너에 있는 뜰이다. 당초에는 지금의 반계정(盤溪亭) 건너편 산 중턱에 위치했으나 점차 그 아래쪽 산기슭으로 옮겨진 마을이다. 석바탱이라는 지명(地

名)은 산 중턱(지금의 밤밭)에 마을이 있을 때 얻은 지명으로 그곳에는 돌이 많아서 돌 바탕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석바탕이가 되었다고 한다.

- 새마(新村)

석바탕이에서 아불 마을로 가는 국도변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新村)라 하였다.

- 정각동(正覺洞, 鼎角洞)

골마의 서북쪽 골짜기, 곧 정각산 중턱에 있었던 땜 이름인데 지금은 민가(民家)가 한 집도 남아 있지 않고 폐동(廢洞)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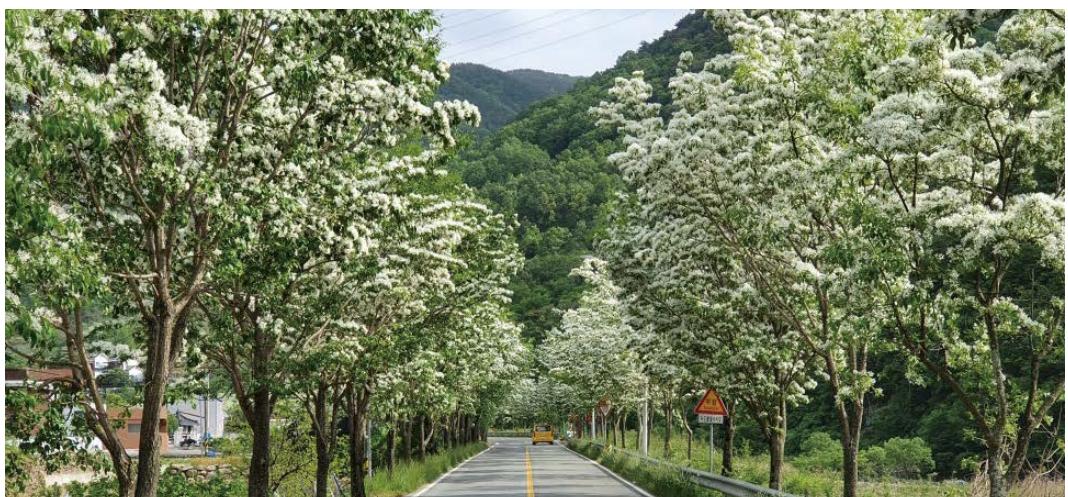
- 절골(寺谷)

골마의 서북쪽, 반계정 뒤쪽 산골짜기에 있었던 절터이다. 오래전에 금동(金銅)부처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돌 부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각사 터라고 한다.

81

- 뿔땅골(黃土谷)

골마에서 원구천(元九川)으로 가는 산모퉁이 왼쪽 하천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옛날에는 민가(民家)가 몇 집 있어 땅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횡토(黃土)흙으로 땅이 붉다 하여 뿔땅골이 되었다.



법흥리

법산은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마을이 열린 곳이다. 1914년에 지방 행정 구역 폐합 때 사지와 상봉을 아울러 법흥리로서 행정리를 삼았다. 법흥이라는 동명(洞名)은 법산을 비롯한 여러 마을이 함께 흥(興)하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 한다.

법흥리에는 법흥마을과 사지마을이 있다.



법흥마을



동으로 안법천을 두고 안법리와 이웃하였고, 서쪽으로는 자씨산을 배경으로 하여 밀양시 구서원동과 시계를 이루었다. 남쪽으로는 비교적 험준한 만어산을 사이에 두고 삼랑진읍 우곡리와 면계를 지었고, 북쪽으로 산을 넘어 미촌리와 이웃해 있는 산중의 동리이다. 전반적으로 산이 에워싸고 있는 만큼 그 지대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골짜기 사이에 전개된 경지를 중심으로 띄엄띄엄 자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 동리는 법산(法山)을 정점으로 하여 상봉 두 자연 마을이 북, 동, 서로 솔밭처럼 배치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은자의 동학이라는 아름다운 칭호가 붙은 곳이다. 밀성 손씨, 안동 손씨, 의령 남씨, 밀양 박씨의 집성촌이다. 주 소득원으로 벼가 주 소득원이며 땅기, 대추, 단감 등이 생산되고 있다.

법흥마을



83

법산은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마을이 열린 곳인데,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폐합 시에 사지와 상봉을 아울러서 법흥리로서 행정 리로 삼았다. 법흥이라는 동명은 법산을 비롯한 여러 마을이 ‘함께 흥하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 한다.

길 오른쪽에 당산나무가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밀양 법흥 상원 놀이’가 태생한 마을인 법흥리 법흥마을 문화회관 앞을 지난다. 회관 앞에 법흥 상원 놀이 전수관도 아담하게 지어져 있다. 정월 대보름날 행해졌던 상원 놀이는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던 대보름제에서 기원한 흥겨운 놀이마당이다.

법흥 상원 놀이

무형문화재 제16호로 단장면 법흥마을에서 년 중 세시풍속 놀이로써 정월 대보름날을 기해 마을 주민들이 당산에 모여 한 해 동안 마을의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낸 뒤, 마을 공터에 횃불을 밝히고 달집을 불사르며 주민 개개인의 동제를 지낸 뒤, 마을 공터에 횃불을 밝히고 달집을 불사르면 주민 개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이웃 간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왔던 모든 액운을 연기와 함께 멀리 날려 보낸 후 마을 주민 모두가 한데 어울려 신명 나는 놀이 판을 벌인다.

법흥마을

상원은 정월 대보름을 이르는 말로 정월 대보름에 행해졌던 놀이를 상원 놀이라고 말한다. 옛날 당산나무에서 곡성이 들려오고, 마을에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당집을 세우고 대보름날 제를 지내자 마을이 평안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법흥 상원 놀이를 세마당으로 나누면 첫 마당에서 마을과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당산제를 지내고, 각 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둘째 마당은 놀이마당으로 웃놀이, 널뛰기, 연날리기하고,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다리밟기를 한다. 뒷마당에서는 달맞이하면서 달집을 태워 마을의 모든 재앙이 불타 없어지고 새 복이 오기를 빈다. 신수가 사나웠던 사람들은 자기 옷가지를 달집에 매달아 태우기도 한다. 모든 마당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신명나는 놀이 판을 벌인다. 법흥 상원 놀이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 앞 넓은 마당에 모여 마을과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화합의 마당을 이루는 것이 특색이다.



- 법산(버구)

법흥리의 북쪽에 위치하며, 안법리의 노상마을과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법산

법흥마을

은 안포, 법귀와 함께 흔히 벼구 삼동이라고 하는데, 벼구라는 지명은 벼꾸(농악기)에서 온 것이라 하며 법귀 또는 법구로 한자음 표기를 했다. 실지로 옛날부터 벼꾸놀음 건립이 유명하여 벼구 농악의 평판이 높았다. 혹은 법산령에서 따온 지명이라고도 한다. 구한말을 전후하여 시독 손달원, 의관 손한원 등이 터전을 잡아 일직 손씨의 세거지가 되었으며 심정암이 라는 문중재사도 있었다. 의령 남씨와 김해 김씨도 입촌하여 살았다.

- 용연산(龍淵山)

안포동 마을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그 기슭에 ‘용이 잡긴 못이 있었다.’ 하여 붙인 산 이름이다. 산 아래에는 의령 남씨 문중 재실인 용연서당이 있다.

- 병신등(병사등, 兵使嶝, 兵山嶝)

법산 마을 북쪽에 독뫼(獨山)처럼 보이는 등성이의 이름이다. 이 등성이에 兵使의 벼슬을 한 인물의 무덤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5

- 법산들(法山坪, 큰들, 大坪)

법산 마을 앞에 있는 들판의 이름인데, 법흥리에서 가장 큰 들이라 하여 큰 들이라고도 한다.

- 상봉(上峯, 상북)

법흥리 동남쪽 안법리와의 경계 지점에 있는 높은 지대의 산 중 마을이다. 법산에서 바라다보면 ‘위쪽 산봉우리 밑에 있다.’ 하여 상봉마을 또는 상북마을이라 했는데 서쪽에 있는 사지 마을과 북쪽에 있는 법산마을과는 골짜기와 좁은 들판을 사이에 두고 삼각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옛날부터 나무 열매와 풀뿌리를 먹고 살면서 산간을 떠돌아다니던 미사리들이 이 근방에 많았다고 한다. 근대에 이르러 밀성 손씨와 의령 남씨들이 이 마을에 정착하여 법산, 사지, 법귀 등과 함께 마을의 법을 정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지키고 있다.

- 잔치방우(婚姻岩)

상봉마을과 감물리와의 경계 지점에 있는 파거미산 기슭의 아래쪽 길가에 있다. 임진왜란 때에 이 바위를 사이에 두고 두 마을에서 한 집씩 피난생활을 했다. 한 마을 집에서는 총각이 숨어 살았고, 다른 한 마을에 서는 처녀가 숨어 살고 있었다. 두 집에서는 이러한 사실도 알지 못

법흥마을

한 채 전쟁이 끝나고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세월이 흘렀던지 두 마을 처녀와 총각은 어느새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 혼인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수없이 이 바위에다 초례청을 만들고 두 마을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 뒤부터 이 바위를 혼인 잔치 치르는 바위로 명했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도 마을의 노총각, 노처녀들은 이 바위에서 절을 하면 빨리 혼인을 치를 수 있다는 속설이 전해온다.

– 국시당(國施堂, 國師堂, 國社堂)

상봉마을 갓등 윗머리에 서낭당이 있었다. 나라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여 국시당으로 전해 온다고 한다. 그러나 서낭당을 국사당, 또는 국사당으로 불린데서 생긴 지명이 아닌가 한다.

당밑들(堂下坪, 당나무들)

상봉마을 동쪽 사이에 보이는 들판의 이름이다. 상봉에서 감물리로 가는 길은 산모퉁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산모퉁이 길가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다. 이 돌무더기 옆에 당집이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당집 앞에 돌을 던지면 액운을 면하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민간 신앙 때문이었다. 옛날에는 당집을 중심으로 잡목이 우거져 있었으나 지금은 풍경이 달라졌다. 이 당의 아래쪽에 있는 들이라 하여 불인 지명이다. ‘당나무들’이라고도 한다.



사지마을



법흥리의 서쪽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비교적 넓은 골짜기와 경지를 좌우에 거느리고 있는 깊숙한 마을이다. 본래 이곳의 골짜기에 모래가 많다 하여 마을 이름을 사지(沙地) 또는 사지(沙旨)라 하였는데 오래전부터 경전을 일구어 사람들이 살았다. 감물리에 저수지를 축조한 이후에는 모래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줄었다고 한다.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안동 손씨, 경주 이씨의 집성촌이며 주 소득원으로는 대추, 벼, 밤 등이 생산되고 있다.



87

법흥리의 서쪽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비교적 넓은 골짜기와 경지를 좌우에 거느리고 있는 깊숙한 마을이다. 본래 이곳의 골짜기에 모래가 많다 하여 마을 이름을 사지(沙地) 또는 사지(沙旨)라 하였는데 오래전부터 경전을 일구어 사람들이 살았다. 감물리에 저수지를 축조한 이후에는 모래의 유사현상(流沙現象)이 매우 줄었다고 한다.

- 사지(沙旨, 沙地)

법흥리의 서쪽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비교적 넓은 골짜기와 경지를 좌우에 거느리고 있는 깊숙한 마을이다. 본래 이곳의 골짜기에 모래가 많다 하여 마을 이름을 사지 또는 사지라 하였는데 오래전부터 경전을 일구어 사람들이 살았다. 감물리에 저수지를 축조한 이후에는 모래의 유사 현상이 매우 줄었다고 한다.

사지마을

– 초당골(草堂谷)

사지 마을 생이덤 남쪽 골짜기의 이름인데 갓등(국시당산)과의 사이에 있다. 옛날 이곳에 어느 선비의 초당이 있었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문방우골(門岩谷)

사지 마을 생이덤 옆에 있는 골짜기인데 문처럼 서 있는 바위가 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 생이덤(사운암, 생원암, 墓輿崖, 상여암)

사지 마을 초당골 위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말하는데, 산 위쪽에 들어 얹힌 층 덤의 모양이 마치 상여(喪輿)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운암 또는 생원암이라는 이름이 있으나 생이의 변음에서 온 것이다.

– 구순고개(舊書院峴)

사지마을 박성(朴姓)갓 옆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밀양시 활성2구 구서원으로 통한다. 구서원은 점필재 서원이 있던 자리라 하여 구서원인데 지금의 활성2구이다. 구순은 구서원의 변음이다.



– 만어들(萬魚坪)

사지 마을 뒷동성이 아래에 펼쳐져 있는 들 이름이다. 뒷산으로 넘어가면 만어등인데 ‘만어사 산자락에 위치한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옛날에는 한 때 이곳이 만어사의 관할이 되기도 했다 한다.



사지마을에는 지산 석용백 선생의 지역개발 공적비가 있다. 내 고향을 내 힘으로 가꾸겠다는 굳은 의지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던 바, 이 고장 발전의 귀감이 되고자 마을 주민들의 염원으로 힘을 모아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공적비이다.

8

사연리

사연(泗淵)이란 지명은 사연(沙淵)의 음(音)을 표기하면서 사수(泗水) 또는 사빈(泗濱)으로 아화(雅化)하여 이곳에 정거(定居)한 선비들이 붙였다고 한다.

사연리에는 동화마을, 사연마을이 있다.



89

동화마을



사연 본동에서 동쪽으로 단장천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행정적으로 모두 다섯 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충사로 가는 도로변 산기슭에 있는 마을이 동화전 본뜸이고, 거기서 남쪽으로 산골짜기를 따라 세천과 성지곡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남쪽으로 밭말리와 말뱅이(말방)가 위치해 있다.

동화전이라는 지명은 옛날 이 일대에 오동나무가 많아 오동나무 꽃 밭이란 뜻에서 생긴 이름으로 동하진, 하진이라는 다른 지명도 있다. 이 곳은 옛날 영정사(표충사)로 가는 길목으로 사연에서 건너오는 나루터였다고 한다. 곧 사연의 동쪽 아랫마을 나루터라 하여 동하진이 동화전으로 변음이 된 곳으로 전해 온다. 조선조 선조 때 손영이 경주에서 입촌한 후에 월성 손씨의 터전이 되었는데 철종 때는 그 후손인 대평항재 손호익이 살았던 마을이다. 1910년에 손씨 문중에서 사양재라는 재사를 건립하여 수호하고 있다.

동화마을 



90

동화 같은 매력에 이끌려 밀양 캘리그라피협회, 국제현대미술 협회, 마을미술 너울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이곳 동화마을에 있다. 멀리 재약산과 정각산 그리고 수연산으로 감싸져 있어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표충사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서 쉴 새 없이 내달리는 자동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렇다고 을씨년스럽게 조용한 마을은 아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도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동화마을

은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와 나들이 삼아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했다.

수연산 자락에서 내려와야 할 물이 빠질라버린 탓인지 정비를 위해 흐르지 않는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바로 코앞에 단장천이 흐르고 수연산을 넘어 양산 배내골 방면으로 넘어가면 밀양댐 생태공원과 밀양



동화마을

호를 즐길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이곳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실망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무데크길을 느릿느릿 여유를 가지고 걷다 보면 마음속의 고민도 덜어낼 수 있고 주변의 수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을 만끽하는 호사도 누려볼 수 있다. 한쪽에는 오래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토담이 있고, 반대편에는 현대식 시멘트로 이뤄진 담이 대조적으로 마주 보고 있다. 재약산과 천황산으로 오르는 등산인들이 많았는데 동화마을에서 내려 정각산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요즘은 많아졌다 보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어 이렇다 할 등산로의 표시가 잘 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동화마을에서 시작해 아불, 구천, 김고, 송백, 도래재까지 두루두루 입산해 정각산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 세천(洗川)

동화 전과 성지곡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 골짜기에 맑은 물이 흘러 깨끗이 씻어 내린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곳이다.

91

– 성지골(聖智谷, 聖地谷)

동화전에서 세천을 지나 북쪽 산골짜기로 한참 들어간 곳에 있는 옛날 화전민 마을이다. 성지라는 감여가가 살았다 하여 성지골이라고도 하고, 명당이 있는 성스러운 곳이라 하여 성곡 또는 성지곡이라 했다고 한다. 조선조 후기에 피난민이 정착하여 화전을 일구고 산 이후 점차 취락이 형성된 곳이다. 동화전 윗마을이라 하여 상촌 곧 상추마라고도 했다.



– 밭말리(田旨, 栗末里)

밭이 있는 마을이란 뜻인데 말방의 서쪽에 있다. 또 말방에서 시작된 밤숲이 끝나는 지점이라 하여 밭말리라고도 한다. 태룡리와의 경계 지점이다.

– 말뱅이(말坊, 末方)

동화전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말뱅이란 말을 먹이는 방리라는 뜻인데 옛날 이 곳에서 말을 길렀다는 전설이 있다. 또 옛날 태용리 끝 마을이라 하여 말방(末方) 또는 말방(末坊)이라 했다고도 한다.

사연마을



단장천 서쪽 정각산 줄기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로서 강 건너에 동화전 마을과 마주 보고 있다. 재약천과 고사천의 물이 범도리에서 합류하여 흘러내린 모래가 쌓여 강바닥이 넓어지고 높아져서 지금의 태용사평을 비롯한 마을 앞 일대의 들판을 거의 충적토(沖積土)로 메웠으며, 물이 부딪쳐 흐르는 요소마다 자연적인 연못이 이루어졌다. 반계연, 웅연, 당연, 호정연 등의 지명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이 마을을 애초에 사연이라 한 것도 모래와 연못이 많은 아름다운 촌락이었기 때문이다.



사연(泗淵)이란 지명은 사연(沙淵)의 음을 표기하면서 사수 또는 사빈으로 불리었으며 이곳에 살았던 선비들이 붙였다고 한다. 사연은 본동 이외에 북쪽 산골짜기를 따라 중촌이 있고 거기서 한참 더 들어가면 승학동이 있는데 지금은 민가가 없어진 폐동이다. 조선조 순조 때 죽업 이국이 이 마을에 터를 잡은 후 이방섭, 이장유, 이종흡 등 대를 이어 살면서 여주 이씨의 세거지가 되었고, 구한말 이후에는 밀양 박씨와 김녕 김씨, 경주 손씨도 이 마을에 살았다.

- 중마(中村)

사연 본동에서 승학동으로 가는 중간 위치에 있는 마을이다. 사연과 승학동의 중간 마을이라

◆ 사연마을

하여 생긴 지명인데, 오래전부터 민가가 있었으며 1921년경에는 이곳에서 금동으로 된 불상을 발견하여 당국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승학동(乘鶴洞, 사양동, 시역동) : 중마 북쪽에 있는 폐동인데 사연 본동에서는 약 4km쯤 떨어진 산허리에 위치한다. 옛날에 신선이 학을 타고 날아온 곳이라 하여 승학동이라 했으나 후일에 음이 변하여 시양동 또는 시역동이라 불렸다. 조선조 현종 때 농은 이종곤이 입촌하여 살았으며 그 후 경주 손씨도 거주한 일이 있으나 지금은 폐동이 되었다.

- 침류정(枕流亭, 鏡湖, 범머리못)

사연 본동에서 용회동으로 돌아나가는 길 아래쪽에 있는 의령 남씨의 정자이다. 두 칸짜리 방과 널찍한 대청마루로 이뤄진 단출한 정자다. 마을 뒷산에 있는 무덤이 있는 판서 남오와 침류정 남우문 부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사촌에 있던 것을 1953년에 자손들이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본래 이 곳은 태동에 거주한 군수 안장원이 1900년경에 세운 경호정이란 별장 자리인데 남씨 문중에서 그 정자를 사들이고 침류정이란 현판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연못이 있었는데 범머리산 밑에 있다 하여 범머리못이라 하였고, 안장원이 정자를 지으면서 거울과 같이 맑은 호수라 하여 경호라 했다. 지금은 그 못은 없어지고 따로 만들어진 연못이 있다. 현재는 다시 개인이 사들여 고택 체험 민박집으로 꾸몄다.

- 곰소(熊淵, 곰소, 熊沼)

사연 본동에서 하천을 따라 북상하면 당모랭이 아래쪽에 위치한 깊은 연못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푸른 물이 깊고 있어 옛날부터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물길이 뒤쪽 정각산 너머에 있는 산내면 시례 호박소와 통해 있어 그 이무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전설이 있고, 호박소에서 기우제를 재낼 때 희생으로서 소머리를 바치게 되면 그 살점과 소코의 나무가락지가 곰소 물 위에 뜬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구연과 웅연에서는 동시에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많았다 한다. 또 곰소라는 지명은 그 지형이 곰이 물을 마시고 있는 형세라 하여 유래된 것이라 한다.

사연마을회관 표지석 앞에서 회관을 바라보면 시원스럽게 넓은 터를 자랑하고 있다. 회관을 벗어나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넓은 터에 잔디밭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다. 승학동은 하늘 아래 마을이라는 유래에 의하면 학이 살고, 골이 깊어 산 자체가 날개 형상을 한다고 해

사연마을

서 승학동이라 한다. 사연마을 위쪽으로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면 그 마을은 전원주택 단지인데, 전체 전기 혜택받는 가호 수가 80여 가호 중, 30가호 정도가 된다고 하며, 외지인이 주말 농원 또는 귀촌으로 살고 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그림 같이 숲이 우거진 그 골짜기에 예쁜 전원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동리 한가운데 법홍, 감물의 여러 골짜기에서 발원한 안법천(연화수)가 서북으로 흐르면서 법홍, 안법, 미촌리 등 이른바 삼동의 젖줄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방리가 형성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웃 마을인 사촌과 함께 대개 조선조 초기 이래 선비들의 복거지로 알려져 왔다.

안방리에는 안방마을이 있다.



안방마을



북쪽으로는 가래봉을 분수령으로 하여 미촌리, 단장리, 태용리 등 세 동리와 경계를 이루었으며, 동쪽으로 만어산의 지맥이 뻗어 내린 산줄기를 사이에 두고 무릉리와 이웃해 있다. 남쪽으로도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자락 위로 감물리의 고지와 대치해 있고, 다만 서쪽 한 방향으로만 비교적 뻣한 분지를 바라보면서 법홍리와 경계를 짓고 있는 아늑한 산중 마을이다. 김해김씨, 의령남씨의 집성촌이며, 그 외 밀양박씨, 경주이씨, 여주이씨, 인천채씨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득원으로 대추, 단감 시설채소, 벼가 주 소득원이다.

1914년 지방 행정 구역 조정시에 종래의 안포동과 법귀 두 마을을 합하여 안방리라는 행정 동리를 삼았으며, 이때 노상(路上)과 새뱅이(新坊) 등 두 자연 마을도 아울러 편입시켰다.

안법마을



96

- 칠탄정

문화재 자료 72호로 임진 왜란 때 밀양 석동산에서 의병을 창의하여 충의를 떨친 선조 때 학자 오한 손기양이 만년을 보내던 별업으로 1844년 향중 사림들의 주장으로 경내에 청절사를 세웠다가 그 후 칠탄 서원이라 편액했다.

- 안포동(安圃洞, 安包洞)

안법리 서북쪽에 위치한 중심적인 마을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환경 속에서 기름진 전포(田圃)를 가꾸며 편안하게 사는 동네라 하여 안포동 또는 안포동이라는 동명이 생겼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관인들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은거하는 마을로 알려져 왔다. 특히 구한말을 전후하여 장일포, 이승덕, 손용현, 손기복, 홍재규 등이 차례로 이 마을에 입촌했으며, 그 후에도 의령 남씨, 일직 손씨, 밀성 손씨, 여주 이씨, 광주 안씨 등이 집단적으로 살았다. 마을에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이웃 마을 사촌에 살았던 진사 남순길의 처 광주 안씨가 피난 중 왜적에 항거하여 순절한 사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절부광주안씨단비'가 남아있고, 의령 남씨의 문중 재실인 용연서당이 마을 어귀에 있다.

안법마을

- 용연산(龍淵山)

안포동 마을 동쪽에 위치한 높은 산인데 그 기슭에 용이 잠긴 뜻이 있었다 하여 붙인 산 이름이다. 산 아래에는 의령 남씨 문중 재실인 용연서당이 있다.

- 법귀(法貴, 法區, 베구, 큰골, 大谷)

안포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안법초동학교를 중심으로 동과 남으로 길게 펼쳐 있다. 안포, 법귀, 법산을 가리켜 옛날부터 베구삼동이라 하였는데 법귀 또는 법구는 베구에 대한 한자음의 표기로 여겨진다. 또 이 마을 동쪽 산기슭에 큰 골짜기가 있다 하여 큰골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에는 구한말에 진사 남형규가 사촌에서 옮겨와 살면서 의령 남씨의 세거지가 되었고, 창녕 성씨, 여주 이씨, 여흥 민씨도 입촌하여 살았다.

- 새뱅이(新坊, 塞方, 새터, 새각단)

안법리 서쪽에 있는 안법초동학교 남쪽 어구 논 가운데 있는 땀의 이름이다. 약 50년 전에 이 곳에 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새로 생긴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새로 생긴 방리라는 뜻에서 새뱅이 또는 새터, 새각단이란 지명이 생겼다. 새방은 새뱅이의 한자음 표기이다.

97

- 안골

새뱅이 동쪽 산기슭에 있으며 큰들정 골짜기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안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노상(路上)

안법리의 서남쪽 법흥리의 법산 마을과 내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 보고 있다. 안법리에서 감물리로 올라가는 도로의 위쪽에 있다 하여 노상 마을이라 한 것이다.

(안법사진 2)

용연서당기(龍淵書堂記)

칠탄 구계 위에 안법리가 있고, 동네에는 남씨가 백여 호 가량 살고 있는데. 곡 옛날 상서공(尙書公) 휘 오의 후예이다. 상서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장남 침류은 덕을 숨겨 수행하여 관포 어득강이 옥인으로 인정하였고, 차남 조암은 나의 선조 퇴계 선생을 따라 배워 도학에 뜻

안법마을

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2대를 전하여 침류의 손자 수현 휘 순길은 젊어서 재능과 학문으로 성균관에 선발되었다가, 임하(林下)에 물러나서 덕을 숨기고 문학을 닦음으로써 선대의 미덕을 계승하여 후손에게 전하였고, 별세하자 그 동네 북쪽 계좌(癸坐) 언덕에 장사지냈다. 그 아래 용연(龍淵)이 있는데, 암석 봉우리가 둘러 감싸서 수석이 자못 아름답다



태룡국민학교가 있는 옛마을 태동을 중심으로 그 북쪽 들판에 들마와 면소재지인 연경이 차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장천의 넓은 하천을 건너 용회와 마주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태동, 연경, 용회동, 야촌 등 네 자연마을을 합치고 있다.

태룡리에는 연경마을, 태동마을이 있다.



연경마을



단장면 서북쪽에 위치한 면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태룡초등학교, 단장파출소, 산동농협단장지소, 단장우체국, 보건진료소, 농산물집하장 등이 있는 마을이다. 이 동리는 수리가 매우 좋은 기름진 들판을 거느리고 있다. 주소득원으로 벼와 시설하우스, 한우, 돼지, 대추, 단감, 맥문동을 생산하고 있다.

태동의 북쪽 들판 가운데에 있는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원래 당개라 했는데 북쪽 강가에 기다란 숲 속에 당집이 있었고, 사연리로 건너가는 넓은 냇가의 갯마을이었다. 일제 때 이 갯가에 방축을 쌓고 건넛마을 앞을 지나던 도로를 경찰 주재소와 5일장을 유치했다. 그 후 인근 주민들이 점차 모여들어 신생 마을으로 발전하면서 단장리에 있었던 면사무소

연경마을

까지 이 곳으로 이전했다. 연경이란 지명은 애초에 구연경, 곧 지금의 용회동 구장터를 가리킨 것이었으나 5일장을 옮긴 후 당포를 바꾸어 부른 것이다. 마을 북쪽의 냇물이 흘러가면서 웅연, 당연, 사연, 경호 등 ‘곳곳에 아름다운 연못을 이루었고 그 청명하기가 거울과 같다’ 하여 연경이란 지명이 생긴 것이다.



100

연경마을의 인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구연경에서 이주해 온 각성바지로 모두 120가구에 한 가구당 3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면소재지라는 특성상 단장면의 여러 마을 가운데 젊은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연경마을의 주생업은 약 30ha의 농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다. 주요 환금작물로는 벼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깻잎과 고추 그리고 대추와 단감, 맥문동이 있다. 가축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35가구로 모두 300두 정도가 되고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1농가로 700두 정도 된다. 면소재지로 음식점과 마트, 식육점, 다방, 부동산 등 여러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연경마을의 공동체신앙은 정월대보름에 모시는 당제이다. 예전에는 당제의 제관을 선출할 때 마을의 어른이 대를 잡아서 가리키는 집의 가장이 제관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당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청해서 모시고 있다. 신체는 연경마을 서쪽에 들판 한가운데 있는 당집과 귀목나무이다. 당집은 3년 전 ‘주민활성화의 집’을 건축한 건설회사에서 새로 지어줬는데, 낡은 당

연경마을

집을 허물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고유제를 모셨다고 한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당의 나무 가지를 베어냈는데, 그 후 그 사람이 ‘안 좋게 된 일’이 있고부터는 당을 건들 때는 무조건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 동신을 수호신이라 부르며, 성(性)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당은 원래 연경마을 3반 들마에서 예전부터 모시던 당이었다고 한다. 구연경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 오면서 구연경 사람들이 구연경까지 가서 당제를 모시기 힘들어 어른들끼리 협의를 하여 같이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제물은 제일 하루 전에 밀양장에서 구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사며 값은 절대 깎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은 건어물, 명태, 과일, 돼지고기, 술이며, 초와 향, 소지종 이도 같이 구입한다. 제의절차는 연경마을의 일반기제사와 같으며, 마지막에 소지를 올려 그 해 마을의 재액초복을 빈다. 소지는 각 집집마다 성을 써서 올렸으나, 요즘에는 공동으로 한 장만 올리고 있다. 당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비와 동답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되고 있다. 연경시장은 49장으로 파출소와 단장면 분회노인정 사이에서 위치하였다. 30여 개의 ‘간이 상점’이 있었고 포목, 생선, 고기, 쌀 등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1977년 말 연경마을이 소도시 가꾸기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경시장이 없어졌다. 소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연경마을은 가옥을 허물고 택지를 재정비하여 바둑판모양으로 마을이 다시 구획화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용회동(龍回洞, 會洞里)

연경의 서북쪽 단장천 건너편에 있는 옛 마을이다. 북쪽으로 승학산을 등에 지고 남향하여 앉은 용회 본뜰과 호정산 기슭에 자리 잡은 구연경 등 두 뜰로 이루어져 있다. 1910년대에 개설한 표충사행 지방도로가 지금과는 달리 단장리에서 내를 건너 용회 본뜰 앞을 지나 사연리

연경마을

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신작로 가의 마을로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5일장을 둔 면내의 번잡한 장터거리였다. 용회동이란 서쪽 정면에 독뫼인 경주산을 사이에 두고 그 너머에 용암산과 서로 구슬을 차지하고자 다투는 형상을 빗대어 용처럼 휘감겨진 마을이라 하여 생긴 지명이다. 또 회동리는 용회동의 발음을 줄여 회동이라 표기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장터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생긴 지명이라고도 한다.

- 구연경(舊淵鏡)

용회동 동쪽에 있는 옛날 장터이다. 1910년대에 이 마을 앞으로 표충사행 신작로가 나고 시장이 서서 면내에서는 가장 번잡한 저자거리였다. 시장이 지금의 연경 마을로 옮겨 간 후에도 오랜 동안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들마

태동과 연경 사이에 있는,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다. 간마산 아래쪽에 있는 구도로 옆에 있으며 사연리에 속하는 밭말을 동쪽에 두고 있는 신생 마을이다. 태동과 들말 사이에는 무릉천이 가로 놓여 있고 그 냇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고 있다.



태동마을



태룡리에서 주거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마을이다. 서남쪽에 있는 가래봉을 배산으로 하고 동북으로 향해 앉은 마을인데, 남쪽 산기슭에 있었던 큰 땅이 본래의 태동이고 그 앞쪽에 위치해 있는 현재의 본뜰이 작은 태동이란 뜻에서 소태동(小台洞) 또는 소태동(小太洞)이라 하였다. 태동이란 지명(地名)은 마을 남쪽에 있는 세 개의 봉우리, 곧 삼태산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며,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크고 작은 용처럼 보인다 하여 소태동(小台洞)이라 했다는 일설도 있다. 주소득원으로 시설채소, 단감, 대추, 축산, 벼가 주 소득원이다.



103

태동은 원래 조선 선조 때의 선비 김원성이 성주에서 이주한 후로 김녕 김씨의 세거지가 되었는데, 후대에 김치락이 살았으며 자손들이 삼태산 아래에 태산제라는 추모제사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중간에 없어지고 해방 후에 후손들이 그 자리에 다시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조선조 현종 때에 안유중이 안정중, 괴안수중(등 형제와 함께 부북면 전사포리에서 이 곳으로 옮겨 정착한 후 광주 안씨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마을에는 단연정이란 제사와 서당을 짓고 자식들에게 학문과 거업을 장려하므로서 안효구, 안효완, 안효식 등 아들 삼형제가 다 진사가 되고, 후대도 안희원의 문과 승지를 비롯하여 안익원, 안장원, 안종설 등 여러 사람이 사마방(생원, 진사에 합격한 방)에 올라 벼슬을 했다.

태동마을



– 흥암대(興岩臺)

태동의 북쪽 간마산 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깎아 지른 부엉더미 꼭대기에 있다. 天險의 암벽을 뚫고 설치한 석벽과 계단이 지금도 자취를 남기고 있다. 청일전쟁 직후인 1896년에 태동에 거주했던 군수 안장원이 그 옛날 임진왜란을 상기하여 만든 피난 시설이라 한다. 흥암대라고 한

것은 ‘부흥산 암벽의 조망대’라는 뜻이다.



– 서당골(書堂谷)

태동의 병모가지 고개 동쪽 산 중허리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옛날 이 곳에 서당이 있었다 하여 얻어진 지명이다. 서당은 광주 안씨 문중의 강학소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우리 마을의 시족 중 본관이 연주요 성이 현씨요, 자가 운백(雲伯)인 이 기택 공이 계셨으니 공께서는 철종 을묘에 태어나 선대음덕으로 음경 기전 참봉 리통훈대 부 였고, 대숙인 인동 장씨로 그 사이에 삼남으로 태어난 분이 희 덕술 공이시다. 공께서는 평소 선대의 음덕으로 오직 인과 선을 생활신조로 삼고 생업에 종사하여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평범한 생활을 해 오던 중 불행히도 이곳 밀양 고을 전체에 긴 장마가 지속되어 수확 직전에 있던 보리를 전연

태릉마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계묘년 1963년 보리흉년이니 보리농사에 의존하고 있던 터라,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던 주민들 중 한 집 두 집 기아자가 속출하매 참호한 현실을 본 희 덕술 공께서 그리 넉넉한 처지가 아니면서도 이를 보다 못해 고리채 얻어서 식량을 매입,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주민들을 도와 각 기 생업에 종사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태동교회 설립, 부지를 제공하여 건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촌 전기가설사업 시설비 자부담 부족으로 애로가 많았으나 공이 이 일을 주시 완수하매 전 주민들이 모두 적선 지인이라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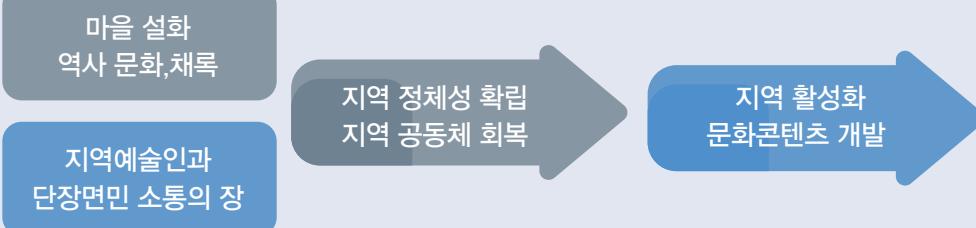


알고다코 이바구 톡톡 (단장)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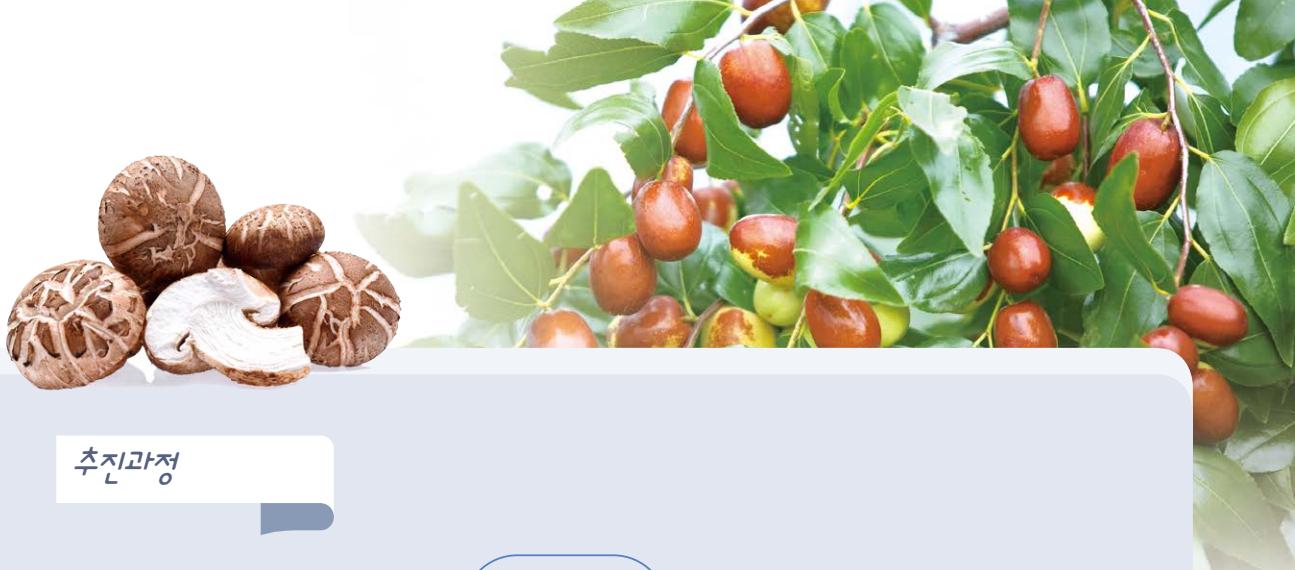
- 주) 구성인원. 단장면 25개 마을 이상 25명 및 주민자치위원 26명, 합계인원 51명.
- 각 마을,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까지 다양한 희로애락과 그 과정을 이해.
- 옛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재의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 예술인과 면민이 협력하는 팀으로 마을사람들의 화합과 융합 공동체 형성,
- 예술인과 (시인, 수필가) 일반인의 융합으로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활동
- 이야기를 공유, 공감대 형성, 화합도모 기회 마련 및 책 제작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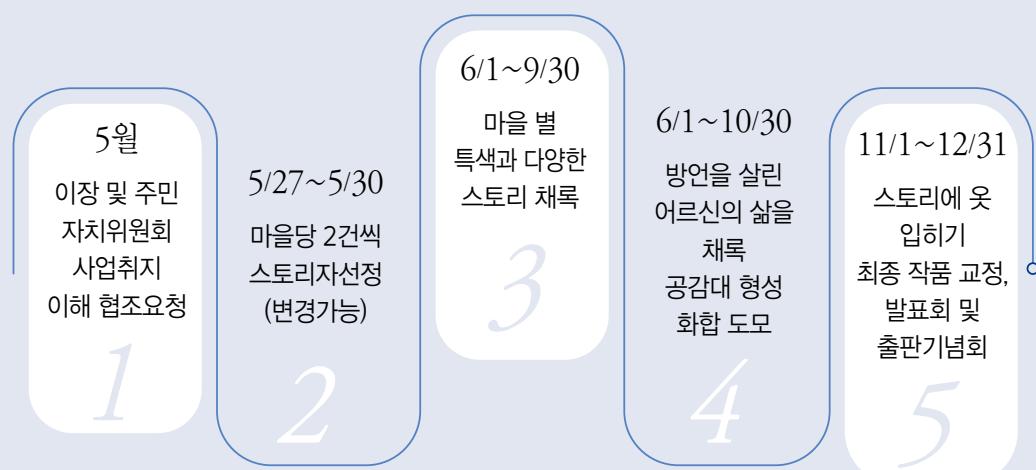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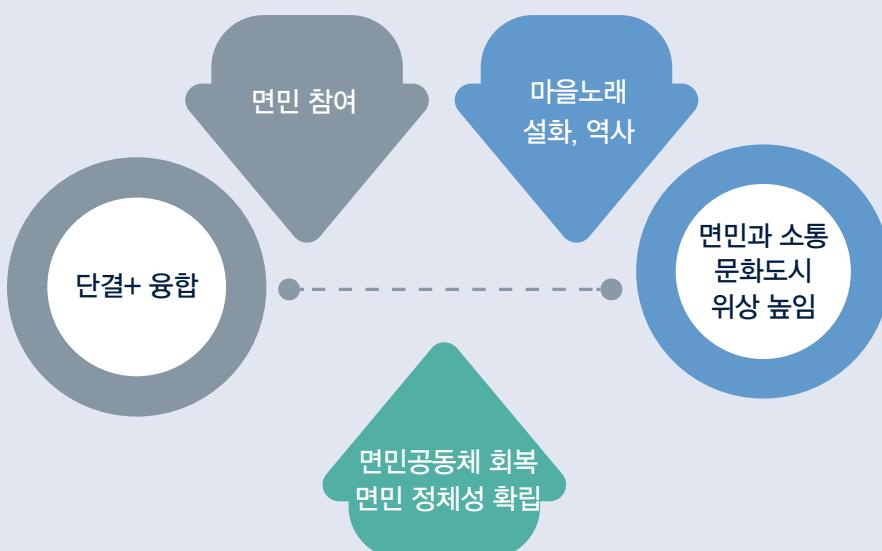


추진과정



107

기대효과



202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문화행사찾기 활동보고서

구 분	현장활동	장 소	단장마을 회관
활동내용(요약)	<p>▣ 활동내용에 대한 요약</p> <p>- 모내기 구전요를 입장하 할머니가 들려주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내기 전의 장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내기 노래 부르심</p> </div> </div>		

108

구 분	현장활동(단장가 발굴)	장 소	손흥수 사학자
활동내용(요약)	<p>▣ 활동내용에 대한 요약</p> <p>- 단장가를 찾아낸 오랜 역사속의 자료 발굴자 손흥수 사학자 만나다.</p> <p>- 노래 가사를 설명해 주시며 불러주셨다</p> <p>- 단장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밀양 전체를 거슬러 내려가는 가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단장가”원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손흥수 사학자님 인터뷰</p> </div> </div>		



구 분	현장활동(6.25사변)	장 소	정세권 자택
6.25 사변 이야기 (양평 뒷산 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참전 유공자 정세권 어르신의 모자 위 금빛 뱃지가 유난히 빛났다. - 그는 전투를 양평 뒷산에서 했고, 중공군과 싸웠다. -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수류탄 날아온다.” 전우에게 고함 질렀다. - 전우는 등 뒤가 이상하다고 봐달라고 했는데, 수류탄이 박혀 있었다. -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장 보고 싶은 전우라고 말씀을 흐리신다.
활동내용(요약)	 6.25에 대한 이야기 들음	 집 앞 텘에 새로운 품종 체리가 오종종.	109

구 분	현장활동(삶의 현장)	장 소	장사익 자택
표충사 매표소와 삶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을 좋아하시는 장사익 어르신, - 1971년 그의 아내는 매표소 운영, 기념품가게, 뱃지, 나물, 수건 등을 팔았음. - 지금은 펜션을 지어 노년 보내고 계심.
활동내용(요약)	 무일푼에서 땀방울로 일군 팬션	 주민자치위원님과 듣다	



구 분	현장활동	장 소	평리 정보화, 산대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동내용(요약)	<p>▣ 활성화 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 (평리)</p> <p>매년 평리마을엔 체험객들로 붐빈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체험객이 끊어짐.</p>	 	<p>평리마을, 산대추 마을, 정보화 마을</p> <p>평상시 여름 날 뗏목타기 장면</p>

구 분	현장활동	장 소	석용백 어르신 자택
활동내용(요약)	<p>▣ 석용백 어르신의 희생, 봉사정신 받들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91세의 어르신을 찾았다 -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근면, 성실, 봉사, 희생정신을 알게 됐다. - 밀양인의 자랑으로 감사하다. 	 	<p>석용백 어르신의 삶을 쓰다.</p> <p>마을 앞 석용백 어르신의 공덕비</p>



구 분	현장활동	장 소	김기두 어르신 자택
활동내용(요약)	<p>● 삼거마을 반석에서 약수를 받아 희귀병 고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거(이불, 구천, 시전)마을에 오래 전 주막집이 성행했음. -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신기하게 반석사이로 약수 흘러나옴. - 그 물을 먹든지 바르든지 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으로 사람들이 북적되었음. - 사람들이 찾아오니 귀찮다고 그 곳에 뚩물을 부어 이후 약수 막혀버려 안타까움. 	 <p>김기두 어르신과 만나다</p>	 <p>약수가 쏟아져 문동병을 고쳤다는 반석</p>

111

구 분	현장활동	장 소	국서마을
활동내용(요약)	<p>● 국서마을 남원양씨 열녀비를 찾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환의 처 열녀양씨가 나서 마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한 효의마을이라고 부름. - 혼자 찾아나서는 남원양씨 열녀비, 국서마을 산자락 아래를 찾음. - 묘소는 벌초가 되어 있었음 	 <p>이정환의 처 열녀양씨 비석</p>	 <p>양씨의 묘소</p>



구 분	현장활동	장 소	안법마을의 이야기를 찾아서
활동내용(요약)	<p>● “용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p> <p></p> <p>들깨의 향이 그윽한 리어카</p>	<p></p>	<p>용연정을 찾다</p>

구 분	현장활동	장 소	국전아연광산
활동내용(요약)	<p>● 활동내용에 대한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전아연광산을 탐방하다 - 밀양에만 크고 작은 광산이 15개가 된다고 한다 <p></p> <p>국전아연광산 경내지질도</p>	<p></p>	<p>조한빈 대표님과 캠도 견학 중</p>

채록을 마치며



작가 박 서 현

나의 한 해는 아주 특별했다. 단장면 25개 마을 “알콩달콩 이야기 책” 쓰기 작가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잊혀가는 마을의 설화, 전설, 구전, 구전요 등 마을마다의 이야기를 채록하게 된 사업이었다.

면장님과 이장님의 도움으로 25개 마을의 역사, 설화 등 잊혀가는 옛이야기 등을 채록하였다. 매주 3회 마을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녹음을 했으며, 이후 현장 사진과 함께 생생한 자료를 발굴했다. 인터뷰 대상은 주로 마을에 가장 연세 드신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유는 오랜 세월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하시면서 해묵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5월의 봄은 참으로 눈부셨다. 연초록의 잎들이 막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을 즈음 처음 찾아간 곳은 밀양의 사학자이신 손흥수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밀양에서 잘 알려진 손흥수 사학자님을 뵙면서, 오랜 세월 밀양에 대한 연구 자료를 포함한 해박한 선생님을 뵙고부터 더욱 에너지가 생겼다. 특히 “단장면 리동가”를 발굴한 이야기로부터 첫 이야기를 풀어내 주셨다.

많은 이야기가 산재해 있는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취재를 했고, 지난날의 아픔에 울고 웃는 일도 더러 있었다. 그런 가운데 느낀 것은 진정한 마을의 자산은 어르신들이었다. 오랜 세월 6.25 전쟁의 난리 통에도 이겨내셨으며, 살아 계셔 중인되는 그 분들이었기에 더욱 존경을 놓칠 수가 없었다. 또한 채록을 위해 산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 못 들어 내 차가 수로에 처박혀 찌그러져버린 부분에 당황했다. 그때 튼실한 트랙터를 몰고 와 끌어내셨던 김영득 이장님의 친절에 대한 해프닝도 있었다. 특히 뱀에 얹힌 서풍객에 대한 이야기를 살아계시는 손자(서환희)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셨을 때 하며, 수많은 인적, 물적 보물이 산재해 있는 단장면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마을마다의 숨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손정태 밀양문화원장님, 문화해설사 이순공님, 한문번역 박태현 밀양문화협회장님으로부터 각각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다만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마을마다의 이야기 가운데 약간의 오기된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넓은 아량을 바란다.

이 사업을 협조해 주신 단장 최혜성, 이소영 면장님, 김숙영님, 25개 마을 이장님, 최태수 위원님, 그리고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기관의 긍정적인 협조에 고마움을 표한다.

